

VOL.204



예술
부산

A R T
B U S A N
M O N T H L Y

2022
JUNE 6

6

JUNE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5

6

7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8

〈아랑고교장구/김강남〉
오후 2시~3시 30분,
2층 연습실

9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김혜경〉
오후 2시~4시, 4층 연습실

10

부산사진작가협회
_제33회 부산사진대전 심사
오후 1시, 051)631-4111

11

부산음악협회
_제49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오전 9시, 051)634-1295

12

13

14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15

〈아랑고교장구/김강남〉
오후 2시~3시 30분,
2층 연습실

16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김혜경〉
오후 2시~4시, 4층 연습실

17

부산문인협회
_시민문예강좌
오후 3시, 051)632-5888

18

부산음악협회
_제49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오전 9시, 051)634-1295

19

20

21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22

한국건강대학총동창회
_결산 총회
오후 2시, 010-5167-2123
〈아랑고교장구/김강남〉
오후 2시~3시 30분,
2층 연습실

23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한국무용교실/김혜경〉
오후 2시~4시, 4층 연습실

24

대한가수협회부산지회
_초하 콘서트
오후 6시, 010-3025-3912

25

26

27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경기민요분과
_‘부산의 풍류 소리마당’
오후 7시 30분,
051)644-5211

28

〈댄스포츠/김희량〉
오전 10시~10시 50분,
4층 연습실
〈라인댄스/김희량〉
오전 11시~11시 50분,
4층 연습실

29

부산예술회관 기획
_문화가 있는 날
_극단 여정_복녀씨 이야기
오후 7시 30분,
051)631-1377
〈아랑고교장구/김강남〉
오후 2시~3시 30분,
2층 연습실

30

〈한국무용교실/김혜경〉
오후 2시~4시, 4층 연습실

희망의 춤 부산에서 하나되다

18th **BIDF**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

2022. 6. 3[금] - 6.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중구 유라리광장, 부산시민공원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사)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 개막식 공동주관 | 영화의전당 | (사)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중구 | busanjin |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 협찬 | BNK 부산은행 | KUMODA | 영화의전당 | 부산문화재단 | 부산국제무용제 부산광역시지회

SIDance 부산 MBC KBS KNN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 문의 | 051-868-7881
www.bidf.kr



※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자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시행됩니다.



ART BUSAN MONTHLY VOL.204

2022 JUNE 6

CONTENTS

권두칼럼

06 예술을 보다 가까이하는 것 _ 최삼섭

예술로 말하다

08 부산예술회관_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팀 다은_주례여고)

예서제서

10 부산예총_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 파빌리온 _ 박시형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청소년무용예술제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 청소년음악회

학생사진공모전

학생그림공모전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시상식

22 부산예술후원회 발기인 총회 _ 박시형

24 소리로 보는 동화 - 꽃이 된 고양이, 올리 _ 박시형

26 2022 부산음악대축제 - 신인음악회 _ 이해영

28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_ 정희경

30 제26회 부산회화제

32 OTT 전성시대, 이젠 어때? _ 정지영

36 부산로컬시네마데이 - 로컬 픽, 시간과 빛 _ 김지연



표지_권 혁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레핀미술대학교 석사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학사

개인전 26회, 아트페어·단체전 약 300여회(2007~2022)

부산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부산시청, 부산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법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작품소장

항아리

116.8×91cm, 캔버스에 유채, 2022



38 2022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39 2022 통도사성보박물관 향 도구 특별전

40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

41 조각가 홍찬효 홍민수 2인전

42 제5회 금빛사상미술협회 정기전

43 제33회 형맥회 정기전

포토에세이

44 무에서 느낀 물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_ 허승도

열린마당

48 부산, 에세이로 피다 - 손가락 언어, 꽃으로 피다 _ 김정화

인물포커스

52 배우 박현, 연출가 최용혁 _ 박시형, 이효민

예술가의 방

54 무용가 강미선 _ 정지영

에인탐방

56 수필가 윤기선 _ 이효민

예술가열전 197

58 서양화가 백성도 _ 박시형

이달의 손쓰시

62 맨발로 온 여름 _ 김정

들여다보기

64 음악/ 양옥진 첼로독주회 첼로와 피아노의 끊임없는 대화 _ 김창욱

66 영화/ 평평남녀 : 평평한 세상을 다져가는 이들을 위해 _ 곽수혜

68 국악/ 박환영 교수 퇴임 기념음악회 민속음악 톨아보기 _ 한창재

기획연재

70 박창희의 길 이야기XVI - 함안 역사순례길을 걷다 _ 박창희

74 부산시립극단과 부산 연극VI

- '1인 예술감독' 혹은 '수석연출'의 등장과 그 이후 (1) _ 김남석

78 建築私記VI-부산계발釜山啓發 _ 허진우

82 예총-전시-공연 뉴스

87 신간 안내

88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2년 6월 통권 204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2년 5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조서영(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김양호(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유영욱(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박시형 편집기자_ 이효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을 보다 가까이하는 것

글 _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느끼는 딱딱한 이미지와 예술 분야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이미지는 두 가지가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구상하고, 창조하여, 없던 것을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 탄생된다는 공통점 역시 갖고 있다. 나는 이 점에 착안해 내가 하는 분야와 예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그림으로써, 예술을 좀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연극 무대나 문학 작품이 대체로 그 시대의 시대상과 인간군상을 담고 사람들의 관심사, 생활양식,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건설 역시 당대에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만들며 현재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문화에 맞춰 공간성을 드러낸다. 어둡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곤 하는 지하주차장에 미술을 접목해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탈바꿈하거나 건물 외부에 조각을 배치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설 분야와 예술이 접목한 익숙하고 좋은 사례기도 하다.

건설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디벨로퍼^{developer}’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회사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분야다. 국어로 쓰면 ‘개발자’가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어떤 건축물을 만들면서 시공사를 선정해 맡기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시행사와 디벨로퍼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디벨로퍼는 그보다 창의적인 발상이 우선되는 일이다.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위험성을 감수하며 각종 이

해관계를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로 우리는 준공 당시 대한민국 최고 높이인 80층으로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를 탄생시켰으로써 부산에 초고층 아파트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해운대는 이런 고층 주거단지가 자아내는 환상적인 야경이 그 자체로 랜드마크처럼 작용해 마치 홍콩이 그러했듯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두 번째로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인 송도 해상 케이블카 'BUSAN AIR CRUISE'가 있다. 산과 바다가 다 있는 부산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은 천혜의 장점이다. 그 아름다운 바다와 해안 둘레길, 파도치는 기암절벽을 그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면, 그러한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한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이 가능한 복합 해양리조트다. 제조업 중심 도시였던 시흥을 서해안 지역의 중심 레저도시로 변모시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케이스다. 이렇듯 단순히 개발을 위한 개발을 추구하거나 이익만을 쫓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디벨로핑(Developing)이다. 매번 막대한 고민을 안고 접근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유다. 특히 부산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난개발이 이어져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도시로써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런 과거의 자취와 천혜의 자연을 어떻게 아우르며,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공적 영역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이다. 부산의 지난날을 남기려는 노력과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동시에 고민하는 건 건설과 예술, 그밖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개발'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문제이듯 '예술' 역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는 부산의 예술—연극, 미술품, 문학 작품 등에 담겨 '부산성'을 드러내고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일 테다. 모든 관심과 발전은 실로 가까이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술을 좀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곳이 예술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의 도시보다 확실한 특색,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이 부산이다. 이 도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어제와 다른 내일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좀 더 그들을, 예술을 가까이하는 건 어떨까.

PROFILE

현)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감사 역임
201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3 제31회 부산산업대상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11 주택건설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on

on

on

부산예술회관_청소년 가요 및 댄스 대회(팀 다은_주레여고)

ART BUSAN MONTHLY 09

새로운 예술 장르로 단장한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2022. 5. 17.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올해로 서른여섯 돌을 맞이한 부산청소년예술제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약 보름간 부산의 곳곳에서 진행된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활약하는 부산의 청소년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에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파빌리온'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개막공연 행사가 열렸다. 파빌리온은 박람회나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지은 건물을 말한다. 이날 공연에는 [빛나라예술단](아랑고고장구) [호댄서스](힙합) [고성방가](판소리합창)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실내악) [해운대글로리아합창단](어린이합창) 팀이 참가하여, 지금까지 부산청소년예술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장르 무대들을 선보였다.

첫 번째 공연팀 [빛나라예술단]은 4분의 4박자의 흥겨운 타법인 '아랑고고' 장단에 맞춰 나훈아의 「최진사댁 셋째딸」

과 1960년대 미국밴드 C.C.R의 「Molina」를 연주했다.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장구를 치는 학생들에게서 그동안 쌓아온 적지 않은 연습량이 엿보였다. 7명의 연주자는 귀여운 율동과 함께 한 몸처럼 정박으로 떨어지는 깔끔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댄스팀 [호댄서스]는 석 달 동안 직접 안무하고 연습해온 「힙합 믹스」와 「걸리쉬 믹스」공연을 펼쳤다. 대학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다년간 준비해온 팀답게 객석의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였다.

세 번째 무대는 청소년판소리합창단 [고성방가]에서 정정렬씨 춘향가를 각색한 「농부가」를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을 이끄는 신호수 고수는 전통복이 아닌 쥬스를 연주하며 추임새를 넣었다. 판소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함이다. [고성방가]는 마지막 곡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송인 「오, 상젤리제」



고성방가



빛나라예술단

를 열창했다.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희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기본기에 충실한 「Over The Rainbow」 「Ode to joy」 「Pomp and circumstance」 「아리랑」 「Can-Can」 연주를 선보였다.

다섯 번째 무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름다운 세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를 준비한 [해운대 글로리아 어린이합창단]이 하얀색 재킷에 붉은색 하의를 차려입은 22명의 어린이를 무대에 올렸다. 길게 한 줄로 늘어선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응원 메시지가 담긴 가사는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가는 어른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해운대 글로리아 어린이합창단]이 「오, 상젤레제」를 노래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기존 개막공연의 레퍼토리인 순수예술 장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의 무대를 시도한 점은 고무적이었지만, 한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공연장 내 조명이 모두 켜지며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지는 진행방식과, 청소년예술제임에도 ‘청소년’보다 ‘월드엑스포’가 주가 되어 보이는 프로그램 구성은 다소 아쉬움을 불러일으켰다. 올 하반기에 개최될 부산예술제의 개막공연과 내년에 열릴 부산청소년예술제의 개막공연에서는 좀 더 관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 박시형



청소년판소리합창단 [고성방가]와의 일문일답

Q. [고성방가]팀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팀은 14살부터 18살까지 있어요.

Q. 이번 공연 준비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A. 2~3달 정도 방과 후에 연습했던 것 같아요.

Q. [고성방가]팀의 'K-소리'는 전통 판소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전통 판소리는 북을 치는 고수 옆에 한 명의 창자가 노래하는데, 저희는 5명의 창자가 아카펠라 구성으로 창을 하고, 고수도 북이 아니라 첼로를 연주하는 점이 가장 달라요.

Q. 'K-소리'를 할 때와 전통 판소리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요?

A. 네, 혼자 무대에 설 때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럿이서 하게 되면 '다 같이 으쌰으쌰 잘해보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성방가] 팀의 멋진 공연을 기대할게요~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 해운대글로리아합창단



호댄서스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대상 수상자와의 일문일답

Q.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김윤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보라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김지훈 저는 구리시 소재의 새음학교 12학년입니다.

Q. 각자 언제부터 글쓰기와 영상제작을 해왔나요?

김윤경 고2 때부터 시작했고 이번 작품이 2번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외에도 여러 산문을 써왔어요.

김지훈 전 중1 때부터 작은 컴팩트카메라로 촬영을 해왔는데요.
이 카메라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 이번 작품은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김윤경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써내는 스타일은 아
닌데 자주 미루다 보니 마감을 앞두고 쓰게 됐어요. 이 작
품은 영상화 할 생각이 아직 없지만 주변에서 제안이 들
어온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김지훈 촬영부터 완성까지 5일 정도 걸렸어요. 친구들과 선생님
이랑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찍은 짧은 영상에 제가 쓴 시
를 나레이션으로 올려서 비교적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Q. 양쪽 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대학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김윤경 네, 저는 서울예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방송작가
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김지훈 전 한예종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수상자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
길 기대합니다~





501. 바원 / 날 (프롤로그)	정훈 조민준	자 이제 별빛 시작합시다! 이 자 준비했어? 준비한 준비는 다 됐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숙습습습. (준을 들이며) 별빛 초록한 거 없으면 죄의 지 없으면 안 되시죠?	정훈 조민준	자 이제 별빛 시작합시다! 이 자 준비했어? 준비한 준비는 다 됐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숙습습습. (준을 들이며) 별빛 초록한 거 없으면 죄의 지 없으면 안 되시죠?
502. 슬립 / 별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정훈 조민준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503. 별빛 / 날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정훈 조민준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정훈과 조민준이 시립백화점 계곡 자취를 밟고 있다. 정훈과 조민준이 대화를 이어간다.

청소년건축상상마당

‘건축적 상상’을 더한 ‘운동장 프로젝트-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운동장 풍경’이 이번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의 주제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둘러싼 담과 하나뿐인 정문 때문에 폐쇄적’이고, ‘운동장이나 교사 모두 획일화된 디자인’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여 ‘한정된 활동만 해야’하는 곳이다. 친구들은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층마다 운동장’을 두거나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운동장’, ‘입구를 터널식으로 개방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자신만의 바람을 담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현직 건축가들도 감탄하게 했다.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미술이 되듯이 공간과 형태로 표현하면 건축이 되는 걸 배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제36회 부산 청소년 예술제 The 36th Busan Youth Arts Festival

부산예술고등학교
도깨비, 열 아해의 잔치



도화명
부름에 돌아보다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태평기



남성여자고등학교
Light it up



부산에스제이발레단
에스메랄다와 친구들

청소년무용예술제

부산에스제이발레단의 김채은 박서영 김민서 백가현과 남성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취미로 춤을 배운다는데 춤을 좋아하는 열정이 느껴졌다. 부산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반 <도깨비, 열아해의 잔치>는 멋짐 대폭발. 스토리 구성, 안무, 음악편집과 의상까지 친구들이 직접 했다는 설명에 연속 감탄. 함께 춤추고 싶게 만드는 헤이데이댄스아카데미의 스트릿 댄스 <핑트 제내레이션>은 양손 엄지 척이다. 제36회 전국청소년무용경연대회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밀양여자중학교 도화영의 <부름에 돌아보다>와 부산예고 강성배의 <말뚝이 놀음>은 훌춤임에도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 무대가 커 보이지 않았다. 역시 수상자의 기량은 남달라. 친구들 모두 정말 '뽕찌다뽕찌다.'

강성배
말뚝이 놀음

헤이데이댄스아카데미
핑트 제내레이션

플루트_박여진



피아노 트리오(바이올린_박동현 첼로_김찬인 피아노_김지현)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가요 부문 대상_정윤희(양운고)



댄스 부문 대상_팀 어라우징





소프라노_김은우

청소년음악회

2022. 5. 2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반짝이는 드레스, 수줍은 미소와 다른 반전 실력으로 박수가 이어진 청소년음악회. 박여진 학생은 부지런한 호흡으로 플루트의 맑은 소리를 위해 노력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을 그린 곡을 연주한 피아노 트리오의 합이 잘 맞아 연습량을 짐작하게 했어요. 김은우 학생은 부드러운 고음과 발성이 일품이었죠. 이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모든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출연

가야금_오윤서 피아노_정윤서 바이올린_송동진
플루트_박여진 클라리넷_김도영 소프라노_김은우
피아노트리오(바이올린_박동현 첼로_김찬인 피아노_김지현)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댄스 부문 은상_이나윤(부산여상고)



댄스 부문 동상_팀 루미에르(부산정보관광고)



- 1 최우수상(부산시교육감상)
부산의 상징
- 2 최우수상(부산시장상)
공룡도 예방접종
- 3 우수상(부산예총회장상)
햇빛 속 고양이
- 4 우수상(부산사협회장상)
Peace

학생사진공모전

2022. 5. 18. ~ 21.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의 33개 중·고등학교에서 219명의 청소년이 작품 401점을 출품한 곳은? 바로 학생사진공모전이죠. 통통 튀는 작품이 가득한 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은 수상한 학생과 축하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아주 훈훈했습니다.

중등부 최우수상 「공룡도 예방접종」은 어린 학생이 공룡에게 주사를 놓는 듯한 순간을 포착해 웃음과 감동을 주었고, 고등부 최우수상 「부산의 상징」은 자유로운 시절이 오길 기다리는 희망이 바다와 갈매기를 통해 느껴졌어요.

최우수상(부산시장상) 정민경 대연중

최우수상(부산시교육감상) 오주현 부산영상예고

우수상(부산예총회장상) 최민정 태종대중

우수상(부산사협회장상) 박준서 부산관광고





부산시장상_부산예고 조정운



부산시교육감상_브니엘예고 박모정



부산시교육감상_모전중 최윤영

학생그림공모전

2022. 5. 23. ~ 28.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청소년기에 미술은, 잘 그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아표현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죠.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은 그리기 까다로운 인물화부터 생활 속 곳곳을 담아낸 풍경화, 독특한 상상력을 펼친 작품들까지 재료, 색채, 주제가 다양했습니다. 말려 올라간 콧수염이 인상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그린 그림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부산시장상을 받은 조정운 학생의 작품이었네요. 그 외에도 모든 작품은 수상 고하와 무관하게 훌륭했습니다.

부산시장상 조정운 부산예고

부산시교육감상 박모정 브니엘예고, 최윤영 모전중

부산예총회장상 염혜웅 브니엘예고, 조민지 브니엘예고

부산미협이사장상 김홍주 브니엘예고, 구연지 브니엘예고,
김영서 브니엘예고, 김진혁 브니엘예고,
박현민 한국조형고, 정연우 부산예고



제36회 **부산**
청소년
예술제
The 36th
Busan Youth
Arts Festival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시상식

2022. 5. 21.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단편시나리오 부문

대상(부산시장상) 김윤경 용인보라고 3학년

최우수상(부산시교육감상) 소유민 고양예술고 3학년

우수상(한국영화인협회상) 김재윤 반송고 2학년, 이하은 거창고 2학년

동영상 부문

대상(부산시장상) 김지훈 새음학교 12학년

최우수상(부산시교육감상) 변예진 한국애니고 2학년

우수상(한국영화인협회상) 김서윤 한국애니고 3학년
연수정 한국애니고 3학년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시상식

2022. 5. 21.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요 부문

대상(부산시장상) 정윤희 양운고

금상(부산예총회장상) 김서현 양운고

은상(부산연예협회장상) 박나혜 통영여고

동상(부산연예협회장상) 황서연 연산초

댄스 부문

대상(부산시교육감상) 서윤비(팀 어라우징)

금상(부산예총회장상) 조유민(나타라자 브이)

은상(부산연예협회장상) 이나윤(문벨리)

동상(부산연예협회장상) 박은진(루미에르)

“이번 대회에는 가요와 댄스 부문 모두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요 부문에서는 음정과 리듬감, 목소리 특색, 댄스 부문에서는 안무의 짜임새를 눈여겨 보았다고 해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연습했을 참가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요(짝짝짝)”



“심사위원 두 분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고등학교 생이지만 주제를 잘 표현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조서영 회장님께서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희망한다’고 격려해주셨는데, 와~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다.”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시상식

2022. 5. 22. 부산예술회관 공연장·회의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 차하영 센텀여고 3학년

최우수상(부산광역시 교육감상) 박주명 한얼고 3학년
안세훈 동천고 2학년

우수상(부산예총회장상, 부산건축가회장상) 정현도 금정고 3학년
윤승범 동천고 3학년
박찬우 동천고 2학년

“단편시나리오 출품작은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서 읽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다수의 작품 속 주인공이 자살하거나 살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남았어요. 동영상 출품작은 독특한 접근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많아 앞으로의 한국 영상 콘텐츠의 미래가 더욱 기대돼요.”



“(사)부산예술후원회” 발기인 총회

2022년 4월 27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지역 메세나 문화의 저력

부산예술후원회 발기인 총회

2022. 4. 27.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에도 명실상부한 '예술 후원회'가 창립됐다. 지역의 유명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부산의 예술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부산예술후원회(회장 허남식)는 4월 27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어 첫 번째 공식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산예술후원회는 지역 기업들의 후원을 토대로, 민간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그 수익의 일

부를 지역 예술인에게 환원하고자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설립취지 채택 △초대회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영상축전을 보내온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년간 부산에는 부산메세나협회 부산시립미술관 후원회 등이 설립되어 부산을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와 바람이 불고 있다"며 "부산예술후원회의 든든한 지원을 동력

삼아 부산시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 토양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초대회장 및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초대회장으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 명예회장으로 강익구 부산영사단장과 정성우 지맥스 대표를 추대했다. 부회장으로는 박원범 전 피복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 김정기 경동건설 사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됐다. 이사에는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강동완 웰니스병원장, 정흥태 부민병원장, 권철우 보해토건 대표, 정광현 코리아오션텍 대표가 선정됐으며, 감사에는 박근서 회계사, 정책위원장에는 조한제 벅스코 감사, 당연직 이사로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허남식 초대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예술후원회 창립에 함께해주신 강익구 단장님,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도시든 품격 있는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어야 하기에, 앞으로 우리 부산도 오늘 창립을 계기로 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합치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예술후원회의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오수연 이사는 “부산예술후원회 창립은 허남식 전 시장님,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글 박시형



강익구 부산영사단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소리로 보는 동화

꽃이 된 고양이, 울리

2022. 4. 27.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2 예감: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이하 예감)의 첫 번째 공연으로 소리로 보는 동화 <꽃이 된 고양이, 울리>가 무대에 올랐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사운드퍼포머 '빨간입술 선생님'을 보러온 5세~7세의 유치원생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빨간입술 선생님 문수경 씨는 사운드퍼포먼스와 일러스트로 제작한 라이브 동화공연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꽃이

글, 문수경

1부에서는 빨간입술 선생님이 멀티톤우드블럭, 천둥드럼, 오션드럼 등 사운드퍼포먼스 도구들을 직접 시연하면서 어린 관객들과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묻고 답하며 소통했다. “또 다른 소리로 들은 친구는 없을까요?”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수만 가지 대답을 늘어놓았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픈 탓에 공연 내내 손을 들고 있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마음을 절로 따뜻하게 만드는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어린이들은 천둥소리나 파도소리임이 분명한 소리에도 자기만의 생각을 담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엉뚱하지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답을 내놓은 몇몇 아이들은 무대에서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익숙하고 뻔한 생각일지라도 거기에 한 번 더 자신의 색깔을 담아보는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필요해 보였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리로 보는 동화 <꽃이 된 고양이, 울리>가 시작됐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새끼 길고양이 '울리'가 사랑이 넘치는 한 가정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장애는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했다. 빨간입술 선생님은 앞서 소개한 사운드퍼포먼스 도구들로 실감나는 동화구연을 선보였다. 무대에서는 김호진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영상, 윤태건·안창철 연주자의 신디사이저·국악 연주, 김현정 무용가의 현대무용 등 융복합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아이들은 보고 듣는 재미에 빠져 1시간 남짓의 러닝타임 동안 앉은 자세를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보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었지만 공연 내내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요즘에는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질 좋은 콘텐츠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가까운 문화예술 시설의 프로그램들만 살펴봐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술성이 풍부한 어린 시기부터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접하며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다면 평생을 가져갈 뜻깊은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부산예술회관에서는 '예감'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극단 [여정]의 <복녀씨 이야기>가 6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청년예술가들의 힙합·비보잉·랩·밴드 무대와 청소년들의 댄스경연대회로 편성된 <제11회 젊음의 축제>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두 공연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만큼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글 박시형





Happy Birthday To You!

2022 부산음악대축제-신인음악회

2022. 5. 12.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첫눈, 첫사랑, 첫걸음, 첫인상…….

첫사랑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나의 첫걸음은 내가 아닌 부모님께 설렘을 드렸을 것이다.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에게 첫인상을 보여줄 일도 드물다. 그러니 우리는 해마다 첫눈을 기다린다. 처음은 그렇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이다. 어설프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처음은 항상 아름답다.

2022년 '부산음악대축제'에서 11인의 차세대 클래식 연주자들의 그 설레는 '첫 무대'를 함께 나누었다. 부산에 소재한 음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발 과정에서 발탁되어 'Debut Concert'의 기회를 거머쥔 신인 음악가들은 여느 날과 다른 없는 무심한 주말 아침 거실에 놓인 화분에서 어제까지는 없던 자그마한 연둣빛 새잎을 마주했을 때처럼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무대를 선물해 주었다. 거리두기 좌석제가 해제되었지만 아직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완

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때 보기 드물게 많은 관객들이 로비를 채우고 있어서 그 '처음의 위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신인음악회의 1부 전체는 피아노 독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아노의 화려함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줄 수 있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쇼팽의 폴로네이즈로 그 문을 열었다. 피아니스트 이나영의 부드러운 터치가 쇼팽 이전의 단순한 의식용 무곡과 구별된 「쇼팽 폴로네이즈」의 매력을 잘 표현해 준 무대였다. 두 번째 무대는 글린카의 「왈츠 환상곡 B단조 Valse-Fantasie in B minor」를 피아니스트 김현아의 열정 가득한 파워풀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다. 다이내믹한 기교가 돋보였던 피아니스트 성예림은 리스트의 「물 위를 걷는 파올라의 성 프란체스코 전설 2번 St. Francois de Paule marchant sur les flots - Legend No. 2」을 연주했다. 다음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곡가로 알려진 뢰티외의 「피아노 소나타 Op.1 3악장 코랄」과 변주곡 「Piano Sonata Op.1 Mov.3

Choral Et Variations』을 피아니스트 박지혁의 연주를 통해 감상할 수 있었는데 곡에 담긴 '전쟁의 아픔과 혼란'이라는 배경을 떠올릴 수 있는 풍부한 표현력이 인상적인 무대였다. 1부의 마지막 곡은 작곡가 슈만이 '들으면 곧 사로잡히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곡'이라고 극찬한 쇼팽의 「스케르초 2번 Scherzo No.2 In B-Flat Minor, Op. 31」을 감상할 수 있었다. 스케르초는 해학적이며 빠르고 경쾌한 기악곡이라는 뜻이지만 G. Henle-Verlag가 '절망과 악마적 에너지의 몸짓'이라고 말한 쇼팽의 스케르초는 고전적인 것과는 다르다. 거친 화음, 웅성거림과 같은 작은 소리에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크레센도 Crescendo, 동양적인 모티브 '도깨비'가 연상되는 갑작스러운 악절의 구성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괴상한 웃차림을 즐긴 여섯 살 연상과 조르드 상드와 쇼팽의 사랑과 슬픔이 담겨있다. 피아니스트 도예찬이 연주하였다.

2부에서는 플루티스트 최영광의 「Cantabile et Presto」, 두 바이올리니스트 배다원, 조은비의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Op. 28」, 「Violin Concerto No. 2 in B Major, Sz. 112: I. Allegro non troppo」의 연주를 감상하였다. 해설자가 소개한 것처럼 청소년 교향악단에서의 경험은 엿보이는 노련한 연주였다. 성악 무대는 소프라노 허수빈이 한국가곡 「고풍의상」과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에서 「Qui la voce sua soave(여기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를 제목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었고 연주의 마지막 무대는 테너 손주호가 한국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과 칠리아 오페라 아틀르의 여인 중에서 「Lamento de Federico(페테리코의 탄식)」을 들려주었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사회자가 곡에 대한 해설보다는 연주하는 신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곡이 어느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다거나 작곡의 배경이 어떠한다는 등은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신인음악회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연주자도

관객도 조금은 다른 해설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무대 구성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11명이나 되는 연주자들이 단편적으로 구성하는 11개의 무대보다는 공연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와 그것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콩쿠르나 실기시험을 연상하지 않고 한층 완성된 공연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신인음악회라는 특징상 연주자 각각의 독주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면 연주 시간이 좀 더 짧은 곡으로 구성하고 연주자들의 앙상을 무대를 삼입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공연의 완성도나 다채로움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무대가 끝나면 우르르 빠져나가는 관객들의 소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무대 구성의 공연인 경우 마지막 무대에 연주자 전원을 등장시키기는 것만으로도 관객의 객석 이탈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부산의 공연 무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연주자의 등용문인 신인음악회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박수 치며 축하해주고 촬영도 할 수 있는 휘날레 무대가 없는 점은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 날 / 첫 꿈을 이룬 날 /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sap을 든 날은 / 언제나 생일이지요.' 이해인 수녀의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라는 시의 첫 연이다.

우리는 인생을 습관적으로 살기 쉽다. 쉽게 익숙해지고 쉽게 설렘을 잊는다. 무엇이든지 처음 대하듯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오늘 다소 긴장된 모습까지도 연주의 한 부분처럼 뜻뜻하고 아름다웠던 11인의 신인 음악가들의 무대! 매일이 처음 같을 수는 없겠지만, 긴 음악의 여정 속에서 오늘의 'Debut Concert'는 힘들고 지친 그 어느 날에 새로운 마음을 내서 정성을 다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Happy Birthday To You!

글_이혜영 문화예술비평가/교육작가

색을 만나다

-부산문인협회 봄 문학기행



차창 밖은 온통 연둣빛이다. 도심을 벗어난 5대의 버스가 점점 그 봄의 절정으로 달린다. 각양각색 글의 색을 지닌 문인 201명의 기대감으로 버스 안은 한껏 부풀었다. 참으로 오랜만의 동행이다. 글을 쓴다는 공통점으로 출발하는 문학기행은 다른 여행에 비해 더 자세히 보고 더 깊이 생각한다는 과정이 다르고 소재와 영감을 얻어 글을 쓴다는 결과를 얻는다. 낭송을 하고, 덕담을 하고, 그간의 안부를 전하는 시간으로 전남 신안군까지의 5시간은 지루할 틈이 없다. 버스 안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동안 우리는 '문학'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색을 입는다.

어느새 해무가 낀 천사대교를 달린다. 압해도에서 암태도로 들어간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그 섬들이 해무 속에 아스라하다. 몇십 년 전 다녀온 캐나다의 천섬 Thousand Islands이 오버랩된다. 개인의 별장이 들어선 천섬에 비해 신안군의 섬들은 고요하고 자연스럽다.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점점이 떠 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느 것이 섬이고 어느 것이 구름인지 해무는 그들을 하나의 색으로 묶는다.

오도 선착장에서 고요한 바다를 반찬 삼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주문한 도시락을 먹었다. 돛자리를 단체로 준비해 쓰레기는 줄였으나 남은 반찬, 플라스틱 용기 처리가 문제였다. 그런데 신안군에서 보내준 청소차가 와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신안군 섬들의 고유색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올 수 있었다.

김환기 고택에서는 자줏빛 모란이 우리를 맞는다. 김환기라면 이 자줏빛 모란을 어떻게 현대화시켜 표현할까 상상하면서 고택을 둘러보았다. 서정주의 시 「학의 노래」에 삽화를 그리고 노천명, 윤동주, 손소희의 시집에 표지 그림을 그렸던 김환기는 김광균, 서정주, 김광섭, 조병화 등과 친교를 맺었다. 문학을 매우 사랑한 화가, 김환기를 키운 것은 무엇일까? 그의 예술적 색채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그림에 나타나는 달과 산과 구름과 학과 향아리 그리고 점과 선은 아마도 신안의 바다와 산에서 왔을 것이다. 이 고택에서 나고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김환기는 고향의 산과 바다를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하고 새로이 탄생시킨 것이다. 고풍스러운 대문에 눈길이 갔지만 집 자체는 특기할 만한 건물은 아니다. 건물 자체보다는 신안이 김환기를 키우고 김환기는 신안을 빛낸다는 진리를 새삼 여기 고택에서 되새긴다.

고택에서 반월도와 박지도 일명 퍼플섬으로 가는 길은 초입부터 보랏빛이다. 두 섬을 잇는 다리는 물론이거니와 지붕도, 전기차도 휴지통까지도 보라색이다. 아니, 그곳을 방문하는 우리들도 보랏빛이다. 보라색으로 섬을 가꿔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에 사는 할머니들이, 'I PURPLE YOU'(보라해)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BTS를 초대하는 내용의 영상도 제작했다고 하니 놀랍다. 박지도와 반월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BTS와 어린왕자를 데리고 오는 등 많은 노력이 '퍼플섬'이라는 새로운 섬을 만든 것이리라. 퍼플교 밑에 펼쳐진 갯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신안의 바다도 'I PURPLE YOU'처럼 끝까지 함께 사랑받기를 기원한다.

퍼플섬에서 목포문학관으로 가는 길에는 붉은 꽃양귀비

도, 나지막한 무화과나무도, 흐드러진 이팝나무도 만난다. 온통 파란색인 지방선거 현수막이 여기가 전라도임을 새삼 인식시킨다.

목포문학관은 목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극작가 김우진, 소설가 박화성, 극작가 차범석, 문학평론가 김현 등 4인의 복합 문학관이다. 목포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등과 함께 바다가 내다보이는 목포 갯바위 문화타운에 있어 더욱 부럽다. 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어 야외갤러리도 있고 박화성과 김현의 문학비도 세워져 있다. 문학창작실도 있어 그곳에서 몇 달간 상주 작가를 한다던 후배 작가가 부러웠다. 부산은 언제쯤 문학관을 가질 수 있을까? 부산이 낳은 작가들의 유품과 문학세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5대의 버스는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밝은 점점 검은 빛으로 변하고 달 하나가 우릴 따라오다가 비를 뿌린다. 맑게 씻긴 부산이 우릴 맞는다. 참 많은 색을 만났다. 나는 어떤 색일까? 내가 쓰는 글은 어떤 색일까? 생각이 깊어지는 사이 광안리에 둥근 달이 뜬다. 1951년 부산에서 그렸다는 김환기의 「달밤」 같은 밤이다.

글 사진_정희경 월간『문학도시』 편집장





부산 서양화 작가들의 동행

제26회 부산회화제

2022. 6. 6. ~ 11.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분과위원장 박국영)가 주최하는 '제26회 부산회화제'가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비회원도 '동행 2022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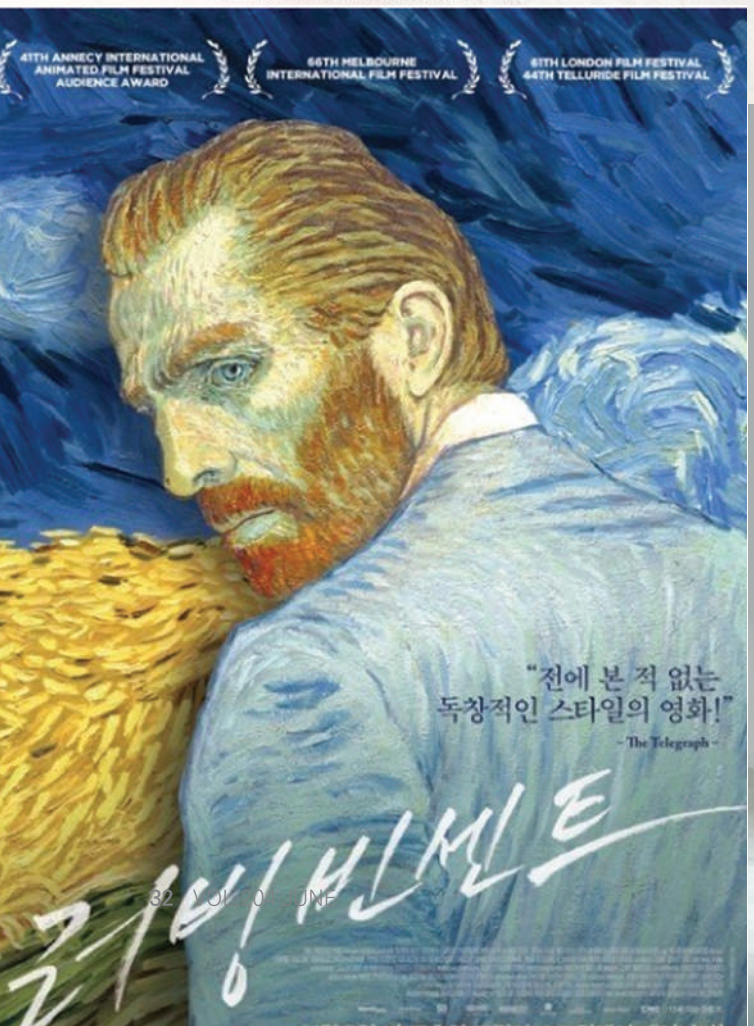
이번 부산회화제에는 원로 및 회원 205명, 비회원 167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코로나19로 미술 전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영향으로 역대 회화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

출품작 370여 점은 정물부터 풍경, 관념적인 이미지까지 저마다의 개성이 묻은 서양화의 미학을 뽐낸다. 그 어떤 전시보다 많은 부산 서양화 작가들이 모인 '아트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양화분과위원장 박국영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회화제"라며 "쾌적하고 편안한 감상을 위하여 전시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_010-2870-0505 / 편집실

- 1 이상순_들꽃축제, acrylic on canvas, 53x41cm
- 2 유녹_황금꽃, 유화, 37.9x45.5cm
- 3 이원숙_Variety, 53x45cm



OTT 전성시대, 이건 언제?

이번 호에는 OTT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술 관련 영화들을 소개한다. 소개된 영화 외에도 비운의 예술가 까미유 끌로델의 일생을 보여주는 <까미유 끌로델>,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그린 <프리다>, 장승업의 삶을 그린 한국영화 <취화선> 등 미술가들을 소재로 한 영화도 다양하다. 영화에 담을 수 없었던 예술가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에 관람 후에는 주인공과 관련된 책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글_정지영



에곤 실레 : 욕망이 그린 그림

2016,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109분, 티빙·웨이브·왓차
감독_디터 베르너, 출연_노아 자베드라, 발레리 바흐너, 마레지 리크너, 라리사 에이미 브라운, 마리 융

구스타프 클림트의 제자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등 동시대 지성들과 교류하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헤쳐갔던 표현주의 작가 에곤 실레의 일대기를 영화화 했다. 실레는 명문인 빈 예술아카데미에 최연소 입학 허가를 받으며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보수적인 아카데미의 학풍에 반대해 학교를 그만두고 '신예술가 그룹'을 결성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2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실레는 자화상을 비롯해 거친 소묘, 적나라한 누드, 왜곡된 신체 표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성적인 욕망 등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은 2천5백여 점의 매혹적인 작품을 남겼다.

영화는 여동생 게르티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줬던 네 명의 여인(게르티와 예술에 있어 자유로움을 깨닫게 해준 모아 만두, 평생의 연인이자 보호자였던 발리 노이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에디트)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실레에게 예술은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16세 여동생의 나체를 그리고, 모아 만두와 발리와 사랑도 실레에게는 예술 구현을 위한 대상일 뿐이다. 영화는 그런 실레의 예술 세계에 대해 애써 해석하거나 판단함이 없이 담담히 보여준다. 한 예술가의 일생을 그리고 창조의 원천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다.



파울라

2017, 독일, 123분, 티빙·웨이브·왓차
감독_크리스찬 슈비초브, 출연_카를라 주리, 알브레히트 슈흐, 룩산드 듀란, 조엘 바스만

독일 표현주의 선구자로 31세에 요절한 파울라 모더존 베크(1876~1907)의 짧은 생을 담은 그림 같은 영화다. 750점의 회화와 1천여 점의 소묘 작품을 남긴 파울라는 금기를 깨고 여성화가 최초로 누드 자화상을 발표했다. 여성의 신체와 빈민 계층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당시의 화풍을 따르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감성과 직관대로 그리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창조하며 시대적 편견과 한계에 도전했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영화에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조각가 로댕 그리고 폴 세잔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 예술가와 작품도 등장한다. 파울라의 대표작 중 하나로 시인 릴케의 초상화가 손꼽히기도 하는데, 릴케는 파울라의 소울 메이트였으며, 독일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파울라를 예술의 도시 파리로 이끌었다. 독일 예술가 공동체 보름스베데에서 함께 그림을 공부했던 친구인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는 로댕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기에 파울라는 로댕의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었다. 우연히 방문한 박물관에서 세잔의 작품을 만난 파울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한 세잔의 작품에 단번에 매료되고 깊은 영감을 받는다. 외에 스승(로댕)이 자기의 작품을 가로챘다고 한탄하는 카미유 클로델과 고갱, 고흐의 작품도 함께한다.



러빙 빈센트

2017, 영국-폴란드, 95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감독 _도로타 코비엘라 휴 웰치먼, 출연 _더글러스 부스, 시얼 샤로넌, 제롬 플린, 에이단 터너

〈러빙 빈센트〉는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다. 오디션으로 선발된 107명의 화가들이 2년 동안 직접 그린 6만2천여 점의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배우들이 먼저 촬영하고 이후 그림과 합성했기에 인물들의 움직임은 박진감이 있고 표정은 생생하다. 평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그가 남긴 편지에 관심이 많았던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이 2분기량의 짧은 단편으로 제작했던 것을 휴 웰치먼 감독의 제안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이 되었다.

영화는 빈센트 사망 1년 후, 조셉 롤랭이 그의 아들 아르망에게 빈센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르망이 테오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고흐의 마지막과 삶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길을 떠나기 전, 롤랭이 아르망과 나눈 대화에서는 인생의 연륜과 삶의 고뇌도 느껴진다. “오래 살아봐라, 그럼 알게 될 게다. 삶은 강한 사람도 무너뜨리곤 해.”

8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했지만 살아서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 수 있었던 반 고흐의 안타까운 삶을 그린 영화에는 자화상, 피아노에 앉은 가셰의 딸, 까마귀가 있는 밀밭, 아르르의 포룸과 광장의 카페 테라스 등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더 스퀘어

2018, 스웨덴-독일-프랑스-덴마크, 151분, 티빙-웨이브

감독 _루벤 외스틀룬드, 출연 _클라에스 방, 엘리자베스 모스, 도미니크 웨스트, 테리 노터리

영화는 ‘더 스퀘어’라는 전시를 앞둔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위선에 대해 보여준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라는 근사한 명함을 가진 크리스티안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겉과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영화에서 크리스티안이 기획한 ‘더 스퀘어’는 신뢰와 배려의 공간이다. 이 안에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작품 설명은 반복해서 나타난다. 영화는 평소 자신이 지키던 도덕적 원칙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크리스티안의 모순적 모습이 작품 설명과 대비되며 인간 내면에 감춰둔 위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또한 작품에 부여된 의미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이를 예술로 표현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찬 것인지 보여준다. 전시 이벤트 중 유인원을 흉내내던 아티스트가 정말 사람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구경만 한다. 인간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위선을 보여준다. 우습게도 주인공이 백화점에서 위급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구걸하던 노숙인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다.

영화 〈더 스퀘어〉는 제70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부산로컬시네마데이 로컬 픽, 시간과 빛

2022. 4. 29.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는 극장에서 완성된다. 영화란 제작에 그치지 않고 관객에게 선보일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는 말이다. 거기까지 이르는 경로가 두 가지쯤 될 것 같다. 영화제, 그리고 배급을 통한 개봉. 대부분의 독립영화는 흔히 전자를 통해 알려지게 된다. 그 가운데 몇몇이 개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지 않는 이상, 관객이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문 편이라고 할 것이다.

부산독립영화제는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지난 20여 년간 부산에서는 로컬시네마라고 분류할 수 있는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매년 부산독립영화제에서는 신진과 기성을 막론하고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발표한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지역을 넘어 한국독립영화의 지형 안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룬 작가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독립영화협회는 지역의 독립영화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와 함께 정기상영회 ‘로컬 픽, 시간과 빛’을 마련했다. 부산의 로컬시네마에 의해서 저마다 영화로 다시 태어난 시간과 빛들을 스크린에 올려보려 한다. 상영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고, 부산의 독립영화를 상영한 뒤 연출자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한 시간 정도 진행한다.

지난 4월 29일 ‘로컬 픽, 시간과 빛’ 첫 번째 상영회가 있었다. 김지곤 감독이 <월간-할매>(2021)로 관객들을 만났다. 김지곤은 지난해 제23회 부산독립영화제에서 <철선>(2021)과 <월간-할매> 두 작품을 선보인 바 있고 <철선>으로 부산영화평론가상을 수상했다. 사람과 상처와 풍경들을 먼발치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듬어내는 듯한 프레임이 아름다운 영화였다. 그렇지만 <월간-할매>로 상영회를 시작한 건,

아마도 많은 관객에게 낯설 부산독립영화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월간-할매〉는 김지곤이 2013년 매월 웹상에 공개했던 열 두 편의 영상들을 하나로 묶어낸 작품이다. 그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명명된 산복도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를 잃게 된 거주민 할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월간-할매〉는 〈할매〉(2011), 〈할매-시멘트 정원〉(2012)과 〈할매-서랍〉(2015)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연작인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변이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점유한 위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영화를 보는 데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애초에 김지곤은 영화를 촬영하러 갔지만 할머니들에게 그것은 손자들과 만나는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어느새 인가 이들은 카메라 앞에 모여서 함께 대상^{對象}이 되었다. 〈월간-할매〉는 그런 유대를 형성한 이들의 관계에 작용된 끈끈한 기록이다. 격렬한 반발과 첨예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대소사를 나누는 일 쪽에 더 가까운 그들은 정답다. 이를테면 김지곤은 찢어도 않고 찾아갈 만큼 할머니의 지척으로 이사를 왔고, 실없는 농담들이 격의 없이 오갈 때면 으레 객석에서 킁킁 웃음이 터져 나왔다. 술상 앞에 둘러앉아 있거나, 잃어버린 개를 함께 찾아다니거나, 상장을 읽어주며 이진 할머니 영화니까 할머니 것이라고 한다.

영상이 촬영된 지 9년이 돼가는 시점, 인물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지곤은 주저함 없이 할머니들을 포함해 그 자손들, 그리고 카메라의 앞뒤에서 영화의 일부가 되었던 스태프들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그사이 고인이 되신 할머니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디지털 영상의 픽셀로만 존재하게 되었구나 하고 돌아가신 사실을 실감케 되었다고도 했다. 객석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녀도

와 있었다. 영화와 영화 바깥은 얼마나 멀고, 또 얼마나 가까울 수 있을까? 〈월간-할매〉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관객들의 대답이 궁금해진다.

상영회는 영화관의 좌석 간 거리 두기가 해제된 첫 주이기도 했다. 아직은 어색한 듯 사람들은 한 좌석씩 건너 앉아있었다. 관객과의 대화도 객석에 마이크를 건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오픈채팅 방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디플러스는 굳이 마이크 없이도 객석과 스크린 사이에 충분히 서로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소담한 상영관이다. 마무리할 즈음에 다다르자(꼭 이럴 때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본인의 목소리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순간을 김지곤처럼 말해보고 싶다. 지난 2년간 오픈채팅 방에 올라오는 질문의 문장들로 대해 온 관객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올 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감했다. 그와 맞물려 ‘로컬 픽, 시간과 빛’을 〈월간-할매〉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재편된 세계의 질서에 또 한번 익숙해질 시기를 맞았다. 서로에게 두려움이었던 시간을 통해 이제 곁을 내주는 시간, 따스한 체온이 흐르는 영화만큼 적절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5월 27일, 두 번째 ‘로컬 픽, 시간과 빛’을 꾸리려 한다. 당신이 곁을 내줄 만한 또 한편의 부산로컬시네마와 함께 그날을 기다린다.

글 김지연 영화평론가



2021 제23회 부산독립영화제_〈포럼〉 월간 할매(김지곤) 작품 스틸컷

2022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Encounter with
the Buddha;
Buddhist Art of Korea

2022. 5. 12. ~ 7. 10.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부산박물관(관장 정은우)이 기획전시실에서 7월 10일까지 특별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합천 해인사, 남해 용문사, 창원 성주사, 양산 통도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서울 경국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등 전국 16개 주요 사찰과 박물관·미술관에서 보존해온 불교미술 작품 110여 점을 공개한다.

상 보살상 조사상을, 2부에서는 한국의 독창적인 불교문화로 평가받는 불복장 의식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의 주요 복장물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의 내용을 담아낸 불화와 경전을 필사한 사경을, 4부에서는 부산 영도구 복천사를 중심으로 현대 영남지방 불교미술의 명맥을 지켜온 완호스님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별기획전의 구성은 1부 ‘불상佛像, 부처님의 참모습’, 2부 ‘불복장佛腹藏, 염원의 시간’, 3부 ‘불화佛畵와 사경寫經, 진리의 세계’, 4부 ‘부산 근대의 불모佛母, 완호玩虎’ 총 4부로 이뤄진다.

1부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불

2

정은우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미소를 마주하신 모든 분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어가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문의_051)610-7120 / 편집실

1 보물 괘불탱(남해 용문사)

2 국보 건칠회량대사좌상(합천 해인사)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9월 4일까지 향 도구 특별전 '청공향사(淸供香事)'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통도사에 잔존한 향 도구 등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국의 옛 향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수행과 교화에 향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향완·병향로·향시반 등과 같은 다양한 향도구들이 제작된 바 있다.

불교의 향 문화 관련 유물과 기록을 다수 보유한 통도사에서는 자체 소장품 외에도, 국보 제75호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1777)과 덕문스님·광우스님·원행스님이 30여 년간 수집한 유물들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대정17년명 청동은입사향완」 「청동박산향로」 「주요전시품4-백자홍록채용문향로」 「주요전시품 6-향반」등이 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7월 23일 특강은 광제사 주지인 원행스님이 <향으로 드러낸 진리의 세계(향 재료와 전향의식)>를, 8월 20일 시연은 통도사 염불대학원장인 영산스님이 <헌향 및 고향의식>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찰에 전해오고 있는 향 문화의 전승과 보존에 대해 살펴보고 수행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5-384-0010 / 편집실

1 청동박산향로

2 대정17년명 청동은입사향완_표충사

3 향반

2022 통도사성보박물관 향 도구 특별전

2022. 5. 28. ~ 9. 4.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淸
供
香
事
香
事



1



2



3

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

2022. 6. 3. ~ 5.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외

— 희망의 춤, 부산에서 하나 되다.

18번째 부산국제무용제BIDF의 주제다. 장장 3년을 팬데믹 아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이는 단어인 '희망'을 말하고 있는 올해 BIDF는, 온라인 송출이 아닌 오프라인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춤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선보이기 위해 국내외 11개국(한국, 필리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홍콩, 프랑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베트남, 독일, 아르헨티나)에서 4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이 펼치는 40여 개의 작품은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와 영화의전당을 주 무대로 한다.

축하공연과 함께하는 개막식은 6월 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공식초청단체가 출연하는 공식초청공연은 4일과 5일 오후 5시부터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데 4일은 [김용걸댄스시어터]의 <Cuatro niñas>, 필리핀 [Saint Louis University Dance Troupe]의 <Panag ani(Kalinga)> 등 14개 공연, 5일은 [와이즈발레단]의 <베니스 카니발>, 이스라엘 [ANADance Company]의 <Introtention Coda> 등 14개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댄싱벤토벤> <그녀에게> <스윙키즈> 세 편의 무용 영화 상영은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중국장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3일 오후 3시 중구 유라리광장, 5일 오전 11시 시민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이후로 9월 중에 젊은 무용창작자를 위한 '국제 안무가캠프'를 개설해 무용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_051)868-7881 / 편집실

스페인_COMPANIA ANTONIO NAJARRO



홍찬효_섬-밤의 메타포, 1250도 산화염, 금채색 800도, 42×42×10, 2022



홍민수_도시-꿈, 1250도 산화염, 금채색 800도, 40×10×40, 2022

아름다운 동행, 도시와 시간

조각가

홍찬효 홍민수 2인전

2022. 5. 27. ~ 6. 30. 갤러리조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기억을 빚어가는 부자父子 도예가가 그동안의 작업물을 선보인다.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가며 시간여행을 하는 홍찬효와 그 시간 속에서 도시의 풍경을 담아내는 홍민수의 이야기다.

두 작가의 도예 2인전 '아름다운 동행-도시-시간'이 6월 30일까지 갤러리조이에서 열린다. 도조 형태의 작업을 하는 홍찬효는 수천 년간 용암의 분출과 냉각으로 흔적이 남은 주상절리, 비바람을 맞으며 썩어가는 고목나무, 묵묵히 세월의 변화를 견디어내는 바다 등을 주제로 작업해왔다. 반면, 어렸을 때부터 상감 인화 박지 분청 등 물레에 기반한 전통 도자 기법을 착실히 익혀온 홍민수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욕망이 가득한 도시의 이중성을 자신만의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홍찬효 작가의 신작 「섬-밤의 메타포」를 비롯한 「시간의 고리」 「흔적」과 홍민수 작가의 「도시-꿈」 「탑 이미지」 「도시」 등 다양한 도예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계자는 “도예의 새로운 면모와 일상 속 생활 도자가 균형 있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통해, 흙이 가진 가능성과 현대도예의 깊이를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문의_051)746-5030 / 편집실



그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제5회 금빛사상미술협회 정기전

조용문_대동여지도 설치 전경

2022. 5. 2. ~ 7. 부산시청 제2,3전시실

금빛사상미술협회의 다섯 번째 정기전이 5월 2일부터 6일간 부산시청 제2,3전시실에서 열렸다.

‘금빛사상’이라는 이름은 빛을 대표하는 ‘태양’과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상’을 결합해 지어졌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개방성과 이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 을숙도가 있는 사상구를 기반으로 한 미술 단체다. 2018년 초대 배기현 회장을 필두로 첫 전시를 연 뒤 매년 정기전과 기획전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서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면서 여러 미술 장르를 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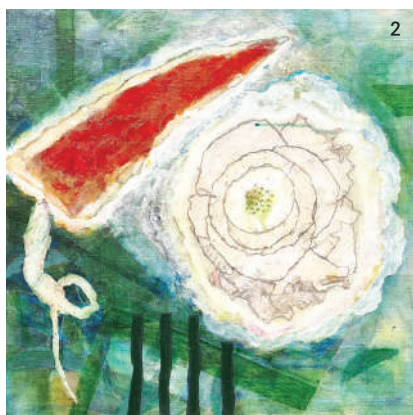
르는 금빛사상미술협회의 특성을 드러냈다. 특히 조용문 작가의 「대동여지도」는 40×30cm 판넬 158개로 구성된 초대형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며, 분단선이 없는 대동여지도의 조형적 재현으로 한반도의 상처 치유라는 메시지를 이끌어 냈다.

올해부터 2기 회장을 맡은 정택금 회장은 “위드 코로나가 이어지는 때에 홍익인간과 같은 금빛의 정신을 실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전시”라고 소회를 밝혔다. 부산지역 미술인과 전국 미술인을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해가는 금빛사상미술협회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본다.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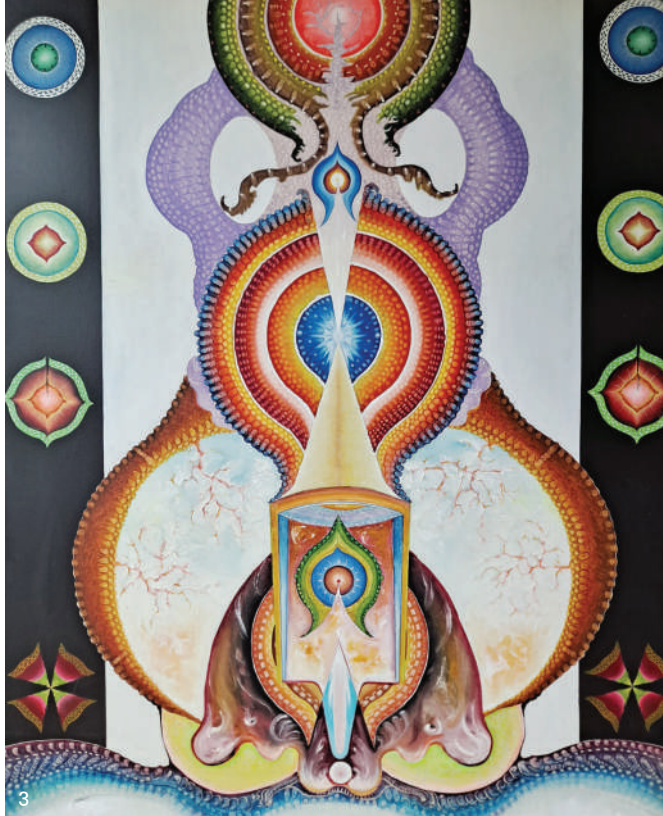


1 김충진_부산1988



2 강명숙_기억의 정원

3 김기남_자연의 법칙



조화, 상생, 공존을 추구하는

제33회 형맥회 정기전

2022. 6. 6. ~ 12. 금련산역갤러리

1995년 창립된 부산의 미술동인 [형맥회](회장 김지영)에서 '제33회 정기전'을 6월 6일부터 12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개최한다. 20여 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세대 간의 조화, 상생과 공존을 추구해온 [형맥회]는 구상과 비구상 회화를 바탕으로 지역 미술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별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정기전에서는 일상 속 숨은 에너지와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시장의 동선과 조명에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공간의 원근과 관객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취지다.

30호에서 100호까지 다양한 크기의 작품들이 40여 점 출품되어 웅장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작으로는 강명숙의 「기억의 정원」, 김기남의 「자연의 법칙」, 김충진의 「부산 1988」 등이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열리는 만큼, 부산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술작품을 향유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10-3841-4676 / 편집실

무 에 서
느 낀 몰 입

엄공 농산물 도 매 시 장





나의 주제인 '몰입'을 표현하기 위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도
 앞·뿌리채소만을 도매 취급하는 곳을 촬영지로 정했다.

이번 촬영은 무(알타리무, 김장무)의 패턴과
 기하학적 구도에 중점을 두고,
 사진예술의 7가지 원칙(균형, 리듬, 패턴, 강조, 대조, 통일, 운동)을
 생각하며 셔터를 눌렀다.

여러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되
 나름의 질서를 갖춘 모습을,







때론 농담과 장난을 섞어 프레임에 담고자
'하이 앵글'로 촬영하였다.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은
"몰입은 사랑입니다.
몰입을 잘하려면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업궁농산물도매시장을 사랑하고 사진을 사랑하면서,
나의 미학적 사진과 기하학적 패턴 속에 몰입하여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촬영을 마무리 한다.

글 사진_허승도 부산사진작가협회

ig.
ricul
esal
arket

부산, 에세이로 피다 - 네넷
손가락 연어,
꽃으로 피다

배가 들어온다는 전갈을 받았다. 오십 톤급 고깃배 선주인 신 여사께 미리 경매 참관 연락을 해 둔 터이다. 요즘은 고등어는 급어기 기간이라 공동어시장의 경매는 신다고 했다. 그녀의 이번 어획량은 모두 자갈치위판장으로 보내어졌다.

어둠살이 번져 나는 시간, 전득하니 항구의 밤바람이 불어온다. 항구의 새벽은 바다에서 시작하고 저녁 또한 바다로 저물어간다. 이곳 남항은 전국 최대의 어항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고깃배가 남항을 거쳐 인근 선착장으로 들어와 남포동 자갈치시장과 충무동 해안시장과 영도의 봉래시장 등으로 생선을 부려놓는다. 초저녁부터 어항을 신고 온 운반선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늘어섰다. 어창에서 꺼낸 어획물은 대기하고 있던 수레가 운반하고 미리 입상되어 있는 것도 선별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의 장화 물결이 생선상자와 함께 파도를 타듯 일렁인다.

상자에 채워진 물고기들이 줄줄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노조반 인부들이 장화 발로 찬 고기 상자가 선별 작업대 앞으로 가서 정확히 멈춘다. 어부의 손을 벗어난 생선들은 이제 작업반 아지매들을 만난다. 경매를 하기 전에 상품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위판장 아지매들이 어종별로 분류하느라 몇 시간씩 제대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손 감각만으로도 대머섯 상자에 크기를 나눠 척척 던져내는 손놀림이 가히 예술급이다. 대부분 일생을 보낸 일터, 경력만도 이삼십 년 넘는 고수들이 즐비하다. 그러니 시절이 좋은 나쁘든 생선 비린내와 함께한 세월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어른들을 모시며 집안을 일구어온 억척 일꾼들이다.

시장 사람들은 봄꽃 흐드러진 이 계절의 수산물이 가장 맛있다고 귀땀한다. 선별을 거친 가자미 수백 상자가 바닥을 그득하게 채워나간다. 얼음을 뒤집어쓴 아귀, 한치, 쥐치, 멍게, 장어, 민어, 홍어, 우럭, 꽃돔, 눈볼래, 달고기, 물메기들도 연이어 위판장에 들어왔다. 모두 바다가 준 선물이다. 따로 저울에 달지 않아도 작업자들은 손대중 눈대중만으로도 중량을 맞춰나간다. 꺾꺾 눌러 담긴 새우도 있고 차곡차곡 빨래

개쳐지듯 얹전히 포개진 가오리도 눈에 띈다. 커다란 참돔이나 광어는 한 상자에 한 마리씩만 담긴 채 몸값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 사이로 나란히 늘어선 갑오징어들이 꿈틀꿈틀 얼음을 비집고 눈치를 살피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

공동어시장 경매가 새벽을 연다면 이곳 자갈치 경매는 하루를 닫는 밤 열 시에 이루어진다. 남들은 퇴근하여 휴식에 들거나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고 곤히 잠에 빠졌을 때, 자갈치위판장에서는 시끌벅적 경매 준비로 분주하다. 경매가 시작되기 오 분 전, 일순 위판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경매사가 울리는 요령 소리에 경매장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따라 이동한다. 위판장 가득 진열된 생선 상자가 어렵잡아 이천여 박스는 될 듯하다. 경계 표시도 없는 생선 상자들이 구경꾼에게는 무질서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은 선주별 조업한 물량을 정확히 구분한다. 경매 참여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진다. 전쟁 아닌 전쟁이 선포되었다.

경매는 먼저 들어온 배 순서대로 진행된다. 어종을 가운데 두고 경매사 주위로 사람들이 빙그르르 원을 그리며 둘러섰다. 붉은 모자를 쓴 오늘의 경매사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현란한 수신호로 경매 가격을 외친다.

“가자미~ 일마이, 양마이, 삼마이야~~”

“삼마이 이치이~~ 삼십오 번!”

옆에 바짝 붙은 속기사가 숫자를 적어나가고 보조 임무를 맡은 직원도 손과 눈으로 분위기를 제압한다. 경매사의 목청이 높ی 찌르다가 다시 우렁우렁 리듬을 탄다. 그 소리가 마치 흑인의 영가같이 구슬프기도 하고 후렴구를 랩처럼 속사포로 반복할 때는 흥겨운 유행가를 듣는 듯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각자의 수지법으로 경매 신호를 보내고 있다. 치열한 눈치작전과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저마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각자의 번호를 새긴 모자를 쓰고서 손가락을 들어서 흔들거나 접어서 바지춤 옆으로 옮기거나 안주머니에서 불쑥 펼쳐내면, 경

매사는 재빨리 눈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훑고 낙찰 번호를 매긴다. 위판장에 설 새 없이 손가락 언어가 꽃을 피워올린다. 원하는 생선을 사지 못한 중도매인의 얼굴은 사정없이 일그러지고 좋은 고기를 낙찰받은 이의 기분은 최고조에 이른다. 재미있는 것은 경매사 앞에서 중도매인이 손가락 신호를 보내고, 또 중도매인을 마주 보고 상인들이 수신호로 주먹을 흔들어가며 물건값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장의 질서가 지켜진다.

삶에 지칠 때 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퍼덕이는 물오른 생선과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에서 잃었던 활력을 얻는다. 이곳 자갈치시장에 와서 아가미가 검붉은 먹갈치와 뱃살이 탄 탄한 고등어를 고르고 뜨끈한 장터국밥 한 그릇이나 퍼덕이는 곱장어 구이라도 먹으면 시들했던 삶에도 생기가 돋게 된다. 무엇보다 저녁 경매 시간에 맞추어 위판장에라도 들르면 왹작박작 생기가 돌을 것이다. 상인들의 걸쭉한 팔도 사투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로 스며들고, 인부들의 거친 육담이 도시인의 걸치레를 조롱하듯 위판장 바닥을 건너 몸을 불려낸다. 그들이 내뿜는 욕설과 은어와 외설이 담긴 시장의 언어가 어찌면 가장 자유로운 인간의 말이 아닌가.

이곳에 오면 누구나 다 이웃이 된다. 스스럼없는 부대낌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 거리감을 없애준다. 준엄한 위계질서도 단번에 무너뜨린다. 장벽을 이루던 지위와 학식과 빈부의 차이가 지나는 손수레에 옥수수자루가 넘어지듯 우르르 허물어진다. 교양 있는 표준어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점방이 열리고 리어카가 다니고 고무 다라이와 비닐 봉다리가 넘친다. 천남마트에서 최신 뽕짜이 올려 퍼지고,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목청을 높여 깡다구를 부리고, 오늘 개업한 과일집 총각의 손 박자 소리와, 비좁은 골목까지 외제 승용차를 몰고 온 앳된 주부에게 쏟아지는 억센 야유까지 그야말로 싱싱한 시장 언어가 완성된다. 제각각

의 경험과 불운한 사연들을 안고 살았지만 인심만은 지금도 혼전만전 넘쳐나는 곳이다.

- 출작 「시장을 품다」 전문

서너 군데 경매가 끝나고 이번에는 신 여사네 생선들을 경매할 차례다. 그녀는 여릿여릿해 보여도 사십여 년간 자갈치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기에 은빛 생선이 깔린 위판장을 한번 쓰윽 둘러만 봐도 어황 정보가 담긴 전광판을 훑듯이 오늘의 물고기양과 선적해온 어황 가격을 가늠한다. 좋은 선장을 모시려면 배도 좋아야 하기에 어선 관리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실력 있는 선장과 바지런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십여 명의 선원들 덕분에 요즘 같은 불황에도 잘 견뎌내고 있다. 고마운 일은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외아들까지 가업을 잇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앳된 아들이 경매사 옆의 선주 자리를 꿰차고 섰다. 오늘의 품어는 단연 이 계절의 인기어인 가자미다. 신 여사가 내 옆에서 자신의 배에서 잡아 오는 수십 종의 가자미류를 알려 준다. 주로 물가자미가 어획량이 많은 편이고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홍가자미와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일품인 '포항가자미'로 널리 알려진 용가자미도 있으며, 경상도 횡집에서 '이시가리'로 통용되는 어마무시한 가격의 돌가자미, 줄가자미 등이 있단다.

생각해 보니 밥상과 친숙한 생선을 꼽으라면 결코 가자미가 빠질 수 없다. 가자미 미역국, 가자미 찌개, 가자미 조림, 가자미 튀김, 가자미구이, 가자미식해 등등... 그러나 가자미는 뭐니 뭐니 해도 회가 최고이다. 문득 며칠 전 물회 집에서 주문하여 맛있게 먹은 '세꼬시'가 생각났다. 어린 가자미를 뼈째썰기한 것이 세꼬시인데 신 여사는 언제부터인가 세꼬시는 먹지 않는단다. 역시 선주답게 어린 물고기는 살려두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어느새 신 여사의 물량에도 낙찰된 번호표들이 꽃혀졌다. 젊은 선주의 표정이 썩 밝지 않은 것을 보니 오늘의 경매가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바다의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는 값이 매겨진다. 저마다 제일 처음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시작으로 이동 장소에 따라 몸값이 올라갈 터. 위판장을 떠난 물고기들은 소매상과 시장을 거쳐 어느 집 밥상으로 또는 어느 횡집과 일식집 등의 식탁 위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싱싱한 물고기는 사고 싶어도 구경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도매인들은 소매인에게 넘기고 가공업자에게 낙찰된 선어들은 공장으로 직행한다. 그러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음 날 새벽 여섯 시부터 여는 위판장 내 '선어 판매장'으로 가면 된다. 이곳에서는 새벽부터 잡아 온 아가미가 깨끗하고 살이 탱탱

한 물고기를 도매와 소매 등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소란스럽던 경매장도 북적거리던 발길도 찾아들었다. 운 좋게도 신 여사가 챙겨준 싱싱한 가자미 봉지가 오늘의 구경꾼 손에도 들려졌다. 하역이 끝난 고깃배들은 어느새 정박지를 찾아 떠나가고 푸른 밤바다에 열아흐레 달이 조용히 내려와 있다.

글 사진·김정화 수필가


박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 1991년 KBS 14기 연기자 공채 | 드라마 <삼국기> <옥이이모> <꼭지> 외 다수 | 연극 <에쿠우스> <청춘포차> <바나야저씨> <몽혼> 외 다수 | 2018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 | 2022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최용혁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상임연출 | 극단 [아로새긴] 대표 | 2017 부산연극제 한형석연출상 | 2019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 2019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 2022 부산연극제 우수작품상, 연출상

이번 인물포커스에서는 '제40회 부산연극제' 대상작인 <슬픔이 찬란한 이유>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극단 [이야기]의 박현 배우와 <가을 반딧불이>로 우수작품상을 거머쥔 부산연극제작소 [동넵]의 최용혁 연출가를 모셔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

회원님이 박현, 최용혁님을 초대했습니다.


박현

안녕하세요? 극단 [이야기]의 배우 박현입니다.


최용혁

반갑습니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넵]의 최용혁 연출가라고 합니다~

네, 두 분께서는 각각 최우수연기상과 연출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수상소감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현

다행히 좋은 결과로 마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 저는 지난 시상식에서 했던 수상소감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작은 성취가 우리 공연의 큰 성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용혁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확인처럼 느껴져 기쁩습니다. 한편으론 그간 해온 작업을 객관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뉴 노멀’ 시대에 연극은 어떤 형태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새로운 연극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평소 다른 지역 연극을 자주 보는데 부산에서 더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재미있는 작품’을 추구해나가려구요. 감상자를 위해 그림 그리는 화가는 없지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걸작이 탄생하듯이, 연극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


박현

제 경우에는 출연진이 13명이나 되는 큰 공연에서 ‘내가 구축하고 구현해야 할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무척 고민했던 과제였는데 정답은 의외로 동료 배우들에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으로 호흡을 잘 맞춰준 손미나 배우와 배진만 배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


최용혁

<가을 반딧불이>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가족과 개인을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정익신 작가님에게 직접 허락을 구해 꽤 많은 부분을 각색했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조금 온건하게 오늘의 시대상을 담았다면, 현재 구상 중인 ‘동시대 시리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건드릴 예정이에요 😊

그러시군요. 현재 지역 연극계에 활약하고 있는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연극에 발을 딛게 되셨나요?



박현

저는 중학교 때 연극을 하겠다던 친구를 말리려다가 도리어 제가 배우가 된 경우인데요. 정작 그 친구는 회사를 잘 다니면서 살고 있죠. 그때도 지금처럼 연극으로 먹고살기 무척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희곡 『에쿠우스』를 보게 됐는데 그만 연극의 매력에 빠져들고 만 거죠 😓 그러다가 1989년에 극단 [우리]의 〈어두워질 때까지〉라는 작품에서 '도트'역을 맡으면서 데뷔하게 됐어요. 이후에는 1991년 KBS 14기 연기자 공채에 합격해서 20여 년간 방송 활동을 하다가 다시 연극무대로 돌아왔지만요.



최용혁

전 어릴 땐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올라가 배우로 활동했고, 부산에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됐는데 그땐 가장 많은 요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연출인 것 같았어요. 물론 지금은 연출가라고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배우의 예술을 하고, 조명감독이 조명의 예술을 할 때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두 분 모두 다음 작품을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박현

배우들의 일과는 공연스케줄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7월 18일에 있을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정은 제가 워낙 '행정기피증'이 많은 성격이라 극단에 일임한 상태예요.



최용혁

동시대 시리즈 중 '혐오의 시대'를 그리는 희곡을 쓰고 있어요. 세월호 사고에서 착안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기억'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연극인이 되고 싶은지에 관한 포부 말씀을 듣고 이만 보내드릴게요! 🙋



박현

개인적으로 연기자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목표는 있는데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라는 사람이 잘했던, 못했던, 배우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 물론, 그러기 위해선 제가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요.



최용혁

저는 대도시답게 빠르게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마음 한 곳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산이 좋습니다. 부산이 '빨리빨리'로 유명하지만 조급함이나 경쟁의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 앞으로도 부산에서 더 많은 이야기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박현, 최용혁 님이 퇴장했습니다.

오늘 연극인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말이 생각나네요. '진정한 소명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이다. 하나의 극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의 치열함은, 스스로 온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소명 의식을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극작품으로 두 분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

인터뷰 정리_박시형 이효민



춤, 길을 내다

무용가

강미선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
-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부지회장
- 영남춤화화한국전통춤협회 이사
- 김진홍전통춤보존회 회원
- 강미선춤·결무용단 대표

춤 공연을 볼 때면 늘 장자의 「천도」 편에 나오는 수레바퀴 깎는 노인인 윤편의 일화가 떠오른다. 요약하자면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험령해지고 덜 깎으면 너무 조이기 때문에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통춤을 배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류’로 명명된 춤과 춤사위는 말과 글로 쉽게 옮겨지지 않으며, 목도目睹한다 해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경지는 아니겠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한 일이지만 춤 본연의 매력을 연구하며 묵묵히 자신의 춤길을 열고 있는 이가 있다.

[강미선 춤·결무용단] 강미선 대표의 삶에서 일 순위는 가족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그의 삶만 본다면 일 순위는 춤이다. 40여 년 춤길을 걸어온 그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내 안의 깊은 대답은 춤을 잘 추는 것’이라 했다. 덧붙여 ‘춤을 제대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중국에는 춤 안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춤으로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가 아니라 자리에 오르려 해본 적이 없다. 단지 말을 걸어오는 춤을 진중하게 맞이하며 인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춤길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다.

춤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어느 날 김진홍 선생님의 공연을 보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의 〈승무〉가 너무 와닿는 겁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승무〉가 너무 궁금해서 10여 년 전부터 김진홍 선생님께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늦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결코 늦지 않았구나, 아직도 배울 게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문득 눈에 띄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날이 있다. 강 대표는 그렇게 다가온 춤을 향해 천천히 다가서고 그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춤꾼이지만 춤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쌓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그에게 사람들은 왜 아직 이수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곤 했다. 춤에 좌표를 두었기에 이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같은 춤이지만 ‘저 사람의 춤에서 나오는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했기에 순서가 아닌 춤 본연의 가치를 찾는 일에 더 집중했다.

그의 프로필 중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는 유일한 것이다. 한창 태평무를 배우고 있을 때 지인은 그에게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활동을 권했다. 마음이 먼저 열리지 않아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어느 날 용두산공원에서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어른들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 멋스럽게 한바탕 공연을 펼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행복한 미소를 띤 어른들을 보면서 스르르 마음이 움직였다. ‘나도 춤과 함께 멋스럽게 나이 들고 싶다.’

춤에서의 자유

초등학교 때 학교 무용반에서 춤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다 운명처럼 황무봉무용학원을 다녔고,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거쳐 88서울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에서 학원을 개원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책임감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청했다. 학원을 운영하며 춤꾼 강미선으로도 최선을 다했다. 이음전통춤연구회 '무행' '2021영남춤축제 - 춤, 보고싶다' 무형유산연합 정기공연 '만고천추 - 영원한 세월' '김진홍의 십야몽' (사)일통고법보존회부산지회 정기연주회 '무악' '동래교방의 신명과 텃배기놀이'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제99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등. 그는 부산과 서울, 해외를 넘나들며 <산조춤> <태평무> <지전춤> <입춤> <살풀이춤> <동래고무> <검무> 등을 선보였다. 2015년 강미선의 홀춤전 '춤이 있는 정원은 춤꾼 엄마를 배려해준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조금 늦게 마련한 개인 공연이었다.

공연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했지만, 스스로 미완^{未完}이라 여겨왔기에 춤공부에 매진했고 춤의 완성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 장단과 소리 공부를 시작했다. 10년 후에는 악가무도 자유롭게 갖고 놀면서 공연을 즐기기 위해. 예술의 본질은 교감을 전제로 관객과 소통을 통해 공감을 형성한다는 데 있지만, 춤꾼으로서 무아지경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부터 관객도 잊고 온전히 춤에만 몰입하는 그런 자유의 순간을.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저의 춤길에는 김진홍, 김은경, 이운자 선생님 등 많은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전통춤에 대한 바른 호흡과 정신, 진중한 가르침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제 춤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춤에 대해 조금 알겠다 싶어졌을 때, 그동안의 배움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강미선춤결무용단]이라는 울타리를 엮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늘 열려 있는 울타리 안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소망을 실천하고자.

농사를 위해 수없이 산을 오르내린 농부의 발끝에 작은 산길이 만들어진다. 작은 인연 하나도 톺아보았기에 강미선만의 춤길도 완^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가 춤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글_정지영



따뜻한 성찰로 삶을 보듬어 안는

수필가

윤기선

- 2006년 『창조문학』 수필 부문 등단
- 국제신문 논픽션 우수상(1999), 제16회 해양문학상(2012), 부산시의회의장상(2016), 제4회 영호남문학상 우수상(2019) 수상
- 현,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 외

수필의 사전적 정의는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 서정이 나 사색, 성찰을 산문으로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사실 좋은 수필을 쓰기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양 술술 읽히는 수필을 만났다. 작가의 진솔한 고백에 흠뻑 취하고 나니 마치 동고동락의 세월을 함께한 듯 그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윤 작가가 등단한 건 2006년의 일이지만 글쓰기 역사의 시작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무렵부터다. 강담사로 유명했던 그의 할머니는 지금 돌이켜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였다. 글 솜씨가 좋아 편지를 대필해달라는 요청이 잦았고 이웃들의 탈상(喪喪)에서 낭독할 제문을 쓰는 것도 할머니의 일이었으니,

윤 작가는 그때마다 곁에서 먹을 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런 할머니 슬하에 있었으니 '이야기'의 즐거움을 일찍 깨칠 수밖에 없었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상급생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네에 가서 빌려 읽곤 하던 그의 꿈은 다름 아닌 '문학소녀'였지만 6남매의 맏이로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직물 공장에 들어가면서 꿈과 멀어졌다.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했는데 1시간 쉬는 시간에 한자 공부 했어요. 한자 하나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뜻이 있는 글을 써야겠다, 하면서 그때도 글 쓸 생각을 했지요.”

고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았을 만큼 글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그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꼭 공부를 시켜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나이 마흔 아홉이 되던 해에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02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어린 날 포기해야 했던 문학에의 꿈에 다가섰다. 문학‘소녀’가 아니라 문학‘할머니’가 되었다는 그의 말은 요즘 말로 웃프게(웃기면서 슬프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곡절이 있었을지는 대강 짐작이 된다. 배움에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마음껏 문학에 심취했고 동대학 대학원 한 국어문학과에 진학해 석사까지 마쳤다. 대학 생활 중에 『창조문학』에 수필로 등단하며 공히 수필가가 되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 수필집에 ‘도서관에서 학생증으로 책을 빌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도서관의 서향에 취하여 책을 찾다가 책장 사이에 끼고 앉아서 책을 읽었다’(『내 인생의 봄날』)면서 당시의 감회를 풀어놓기도 했다.

이처럼 수필가 윤기선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을 꼽자면 그건 아마 ‘남편’일 테다. 두 권의 수필집에 과한 애정 표현이라곤 하지 않았건만 독자는 그의 애뜻한 마음을 가슴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남편은 한자로 사내 남뽕 자에 편한 편자로 ‘편한 사내’라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르다. 밀양 삼랑진에서 나고 자란 윤 작가는 바다에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남들은 비리다는 갯넙새도 그렇게 좋았다. 선원 생활을 하는 남편과 결혼하며 부산에 왔고 선원의 아내로 원양어선을 타고 남들은 쉽게 가지 못할 먼 나라를 여행했다. 바다에 나간 이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은 밀밭처럼 그리움을 익게 했고, 30여 년 만에 바다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남편은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 이를테면 그의 남편은 글공부만 시켜준 게 아니라 문학적 자산이 되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한 것이다.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체험적인 일들을 구체적이고 담담하게 펼쳐낸 그의 수필은 인위적으로 도덕적·계도적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진리에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 그는 사랑스런 손주를 보며 그 옛날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고, 아기를 자고 나면 새롭게 피어나는 꽃 중의 꽃에 비유한다. ‘인생은 별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로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이 될 때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내리사랑』)는 문장은 거창한 것이어야 돌아보는 요즘 시대에 소박한 울림을 준다. 어머니가 타계하던 기억을 쓴 글에선, 손발이 잦아지도록 돌보며 키워준 어머니 가시는 길에 ‘우리들은 고작 어머니가 좋아하신 분홍색 수의를 입혀 드린 것뿐’(『어머니의 분홍 수의』)인 상실감과 절절한 슬픔을 드러낸다. 영원한 이별을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는 문학이 주는 카타르시스로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좋은 수필은 어떤 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 많다. 그러나 밤을 무서워하는 머느리를 위해 뒷간에 따라가 혼잣말을 해주던 할머니, 일하다가 졸고 있으면 끊어진 실을 대신 이어주던 공장 언니들, 달세와 전세살이 끝에 처음 장만한 집 때문에 붙인 문패의 소중함... 소소한 개인의 역사가 글로 빚어져 독자의 마음을 울리니 좋은 수필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필가 윤기선이 쓰는 글의 근본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세상 모든 것への 따뜻한 관심과 배려인 듯싶다. 2013년 『그러나, 그곳에 가면 문학이 있다』, 2018년 『머물고 싶은 순간』 이후로 축적된 그의 삶이 또 한 권 소중한 이야기로 엮어 나오는 날이 기다려진다.

글_이효민



마티에르에 감춰진 삶의 흔적
서양화가 **백성도**

- 개인전 12회 및 단체전 100여 회
-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 1994 동아대학교 학술상
- 1991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 1989 목우회 전국공모전 대상

‘어떤 화가를 좋은 화가로 칭할 수 있을까?’ 감탄을 자아낼 만큼 대상을 정교하게 그려내는 작가? 색채와 구도를 참신하게 표현하는 작가? 작품세계와 아이디어를 독특하게 구축하는 작가? 이중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긴 힘들 듯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들을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작업을 해갈수록 화폭에 담긴 형상들이 보다 단순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넘나들며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부산에서 활동 중인 원로 서양화가 백성도에게서도 이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덜어냄의 미학

여느 혈기 왕성한 젊은 작가처럼 청년기의 백성도 화백도 좁은 화폭 안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제1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昔-」를 비롯한 그의 초기작을 보면, 화면 내에서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형상이 빼곡하다. 구상과 비구상 작품 모두에서 두텁게 쌓아 올린 마티에르 위에 어둡고 짙은 색감으로 그려진 다양한 상징이 나타난다.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기법이다. 이 시기의 작품을 돌아보면 백 화백은 ‘너무 시끄러운 작품들’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최근작에서는 주제와 형상들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간결하게 표현되고, 채색도 포인트 위주로 밝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백 화백은 ‘지루함’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늘 비슷한 기법과 주제로 무거운 작업을 하다 보니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시원시원한 그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작업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덜어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은 세계적인 화가들뿐 아니라 제 주변 작가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의 말처럼 인상주의의 창시자인 클로드 모네도 초기에는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주제를 찾아 나섰지만, 후기로 갈수록 「건초더미」 「포플러」 「루앙 대성당」 「수련」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작업하는 연작 시리즈의 비중이 높다. 특히 70대에 들어서는 집 앞 수련 연못에 소재를 한정하고 있다. 돌고 돌아 끝내는 자기 정원의 일상적인 풍경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다. 이처럼 오랜 활동이력을 자랑하는 작가들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주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은 그리는 것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림에 관한 인식을 ‘그린다’에서 ‘만들어낸다’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작가들은 눈앞의 대상을 화면에 옮길 때도 있는 그대로 그린진 않거든요. 대상을 관찰하며 생긴 자기 안의 이미지와 인상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문학과 음악 같은 타 예술장르들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해요. 예술작품은 쓰거나 그러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예술장르를 미술 음악 문학 등으로 구분하고, 미술장르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으로 다시 나눈다. 예술작품은 각기 다른 소재와 양식을 추구하기에 편의상 분류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백성도 화백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예술은 내 안의 심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므로, 장르의 면밀한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는 화가 음악가 문학가, 서양화가 한국화가 조각가 등을 모두 작(작)가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따라서 백 화백은 모든 예술작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적 특성이 아닌 내적으로 감춰진 주제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예술가들이 어느 하나의 장르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주제의식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정한 셈이다. 그 또한 서양화를 수단으로 삼아 수십 년간 작품활동에 매진해왔다.

닦고 지우는 일

백성도 화백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유화를 접했다고 한다. 서양화 가로서는 다소 늦게 유화를 시작한 편이다. 중·고교 시절에도 미술부 활동을 하며 회화에 두각을 나타냈지만, 당시에는 유채물감이 고가였던 터라 주로 수채화를 그렸다. 이후 백 화백은 조금씩 유화 작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채화와 달리 유화는 덧칠이 가능하여 수정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도 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밟혔던 그에게 유화는 매력적이었다. 백 화백의 전 작품에서 두터운 마티에르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그가 유독 '닦고 지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술을 즐겨 마셨던 40대의 백성도 화백이 평소 애용하던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인故 장이석 선생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장 선생은 백 화백을 언제나 '어이, 백' 하면서 친근하게 불렀다고 한다.



꽃_캔버스에 과슈, 2007

장이석 어이, 백. 요즘 그림 어때?

백성도 요새 닦고 지우고 맨날 그렇습니다.

장이석 닦고 지우고 그런단 말이지?

백성도 예.

장이석 그거 참 좋은 이야기야. 그게 화가의 일생이거든. 닦고 지우는 게 싫어지면 그림 관둬.

격식 없는 술자리에서 들은 뜻밖의 뼈 있는 조언에 그는 술이 화들짝 깨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백 화백은 '닦고 지우는 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작업에 임했다. 과연 스스로 놓쳤거나 몰랐던 부분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에 수정을 가하는 일은 어쩌면 실패를 예고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아마도 수많은 작가들이 완성작에 선뜻 손을 대기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 완성된 작품을 닦고 지워서 성공하는 작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작가들이 그림을 못 지우는 거예요. 그림은 손을 대면 났수록 좋은 흐름에서 멀어지기 쉽거든요. 피카소의 말처럼 100개 중에 1~2개 살리면 대성공인 거죠.”

그럼에도 백 화백은 자신의 특색 중 하나로 ‘덧칠’을 삼으며 지금도 물감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덧칠의 흔적은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에서도 더러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X선 촬영이 가능해진 현대에는 두터운 마티에르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19세기 리얼리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중」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면 중앙에 배치된 감자바구니를 X선 촬영으로 분석해보니 ‘관’을 연상케 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펜 선이 나타났다. 작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입체주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맹인의 식사」 아래에서는 ‘웅크린 여성 누드화’가 발견되며 기존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가 숨어 있기도 했다. 밀레나 피카소가 아닌 이상, 덧칠은 어쩌면 작품성을 산으로 보내버리는 위험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감 안에 숨겨진 형상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

에 둔 백 화백은 언젠가 자신의 작품들을 X선 촬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열어볼 생각이다.

백 화백은 최근 주제를 정해놓고 작업하기보다 그때마다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있다. 유채물감과 비슷하지만, 사용이 편리한 오일파스텔을 즐겨 사용하면서 거리의 풍경이나 정물 등을 담은 소품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작도 일부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대작을 작업하는 방식은 눈여겨 볼 만하다. 백 화백은 먼저 밑그림과 배경을 칠해놓은 다음,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작품을 올릴지를 구상한다. 유화의 물성을 최대한 자신에게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다. 한 겹씩 물감을 쌓는 그를 보며 우리의 인생도 유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인화처럼 일필휘지로 만들어지지도, 수채화처럼 가진 능력 이상으로 펼쳐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물감을 쌓아 올리듯 어제와 오늘을 쌓으며 언젠가 성공작이 될 수 있기를 꿈꾼다. 멈추지 않는 한 실패와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유화처럼, 우리네 삶에도 100분의 1~2의 대성공이 찾아오길 바라여 본다.

글_박시형

이달의

손쓰시

No. 5

맨 발로 온 여름

김정

어머나 거친 들이

맨 발로 달려왔다

달	구	유	를	여	름
---	---	---	---	---	---

뎡 달 아 일 령 였 고

원	두	막	매	미	도	맵	맵
---	---	---	---	---	---	---	---

함께 물어 따라왔다

땀 방울 송송 맺힌

튼실해진 날것들이

흑	도	떨	지	않	은	채
---	---	---	---	---	---	---

난 장을 펼치고 있다

바	빠	도	쎄	겨	먹	어	라
---	---	---	---	---	---	---	---

함	께		싸	온		목	소리
---	---	--	---	---	--	---	----

작가노트 |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정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시 생활로 바쁜 자식을 위해, 그림과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을 손수 가꾼 푸성귀와 먹거리에 함께 써서 보내셨다.

글 김정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 부회장

들어다보기

예술
부산

음악

첼로와 피아노의 끊임없는 대화 양욱진 첼로독주회

_김창욱

영화

평평한 세상을 다져가는 이들을 위해 영화 <평평남녀>(2022)

_곽수혜

국악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개설 40주년 및 박환영 교수 퇴임 기념음악회 민속음악 톺아보기

_한창재

ART BUSAN MONETARY



첼로와 피아노의 끊임없는 대화 양옥진 첼로독주회

글_김창욱 음악학박사 음악풍경 기획위원장

5월May은 '봄의 여신'(로마 신화)이자 '계절의 여왕'(노천명)이다. 부드러운 바람, 따사로운 햇살, 높푸른 하늘이 한껏 열려 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마실이나 나가보면 어떨까? 나가서 달콤한 음악에도 귀를 적셔보면 어떨까?

지난 5월 17일(목) 저녁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첼리스트 양옥진의 독주회가 열렸다. 중후하고 품격 있는 첼로의 선율과 음향이 청중의 마음까지 한껏 적셔 주었다.

양 첼리스트는 줄리아드·메네스·뉴욕주립대 등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대학에서 수학했고, 벌써 10여 년 전에 부산에 정착했다. 부산시향 첼로 수석을 지냈고, 부산마루국제음악제·김해국제음악제·창원국제 실내악축제 등 유수의 음악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더구나 그의 눈부신 연주력 또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첼로독주회에는 모두 3편의 음악을 무대에 올렸다. 베토벤

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5번, 슈만의 「환상소곡 op. 73」,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 19」가 그것이다. 서양음악 역사로 보자면, 18세기 고전시대, 19세기 낭만시대, 19세기 말 후기낭만시대와 같이 각기 시대를 달리하는 음악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첼로음악의 시대별 변화과정과 그 특징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일까?

베토벤은 모두 5곡의 첼로 소나타를 썼다. 그것은 당시 첼로의 명수였던 베른하르트 롬베르그B. Romberg의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음향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리라. 그 가운데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Cello and Piano」 제5번(1815)은 전형적인 3악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위법적 기교, 푸가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전과 대비되는 특징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1악장은 자유분방하면서도 대담한 악상으로 진행된다. 피아노의 강렬한 포르테(f)에 뒤이어 우뚝 솟는 듯한 첼로의 위엄을 보여준다. 첼로는 시종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약동하는 생명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제2악장은 느

리지만 풍부한 서정성이 돋보인다. 여리고 부드러운 악상, 첼로 특유의 음색과 음향이 투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제3악장은 푸가 주제의 단편으로 시작하는데, 매우 활발한 성격이다. 무엇보다 첼로와 피아노가 주고 받는 대화와 투티tutti의 일체감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피아니스트 박민선의 자유자재한 연주력, 첼로와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슈만은 여러 개의 짧은 소품을 연곡連曲으로 묶은 소곡집小曲集을 잇따라 작곡한 바 있다. 대개 피아노 소곡집이다. 「나비Papillons, op. 2」 「카니발Carnaval, op. 9」 「어린이 정경Kinderszenen」 「환상소곡집Fantasiestücke, op. 12」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피아노 이외의 소곡집이 없지는 않다. 바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소곡집Fantasiestücke, op. 73」이 그것이다. 1849년에 작곡된 이 악곡은 본디 피아노와 클라리넷(A조)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클라리넷 대신에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연주해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모두 3편의 소곡이 실려 있다. A단조로 조용하게 시작되는 악곡은 나아갈수록 템포가 빨라지는 등 악상의 변화에 따라 감정도 점차 고조된다.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적詩的 표제는 없으나, 각각의 소곡마다 일정한 연주 지시어가 붙어 있다.

제1곡 '상냥하게'는 어두운 음색의 첼로 주제를 피아노의 잇단 3연음으로 지탱한다. 또한 아르페지오Arpeggio로 반복되는 피아노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제2곡 '생생하게, 가볍게'는 간결하게 시작된다. 제1곡에서 취해진 주제를 피아노에 이어 첼로가 반복한다. 역시 피아노와의 조화로움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제3곡 '서둘러, 정열을 담아서'는 A-B-A'의 3부 형식으로 구성된다. 첼로의 갑작스런 템포 변화, 첼로의 자유분방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 피아노와의 일체감이 돋보였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Cello and Piano, op. 19」였다.

1901년에 씌어진 이것은 이전의 연주곡들에 비해 여러 점에서 현저한 모습을 보였던 까닭이다. 연주시간 35분을 넘어서는 장대함, 주제의 일관된 반복과 변형, 변화무쌍한 악상 변화 등이 그러했다. 특히 첼로의 자유자재한 테크닉, 첼로와 피아노의 긴밀한 조응響應 관계가 돋보였다. 그것은 두 연주자의 음악적 교감은 물론, 오랜 연습을 통한 빈틈없는 호흡 맞춤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제1악장은 짧고 진중한 서주序奏에 이어 첼로의 주제 선율이 부각되고, 피아노의 아르페지오가 점차 악곡의 긴장도를 강화시킨다. 부드러움에서 재기발랄함, 나아가 피아노의 카덴짜Cadenza 뒤에 나타나는 첼로의 격렬한 진행이 마침내 악곡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한다. 제2악장은 첼로와 피아노의 대화와 협력이 두드러진 스케르초Scherzo 악장이다. 저음부의 피아노 위에 첼로의 피치카토Pizzicato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었고,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선율적 서정성과 화음의 짙은 층만감, 후반부에 나타나는 피아노의 화려한 음형과 기교적 패시지가 두드러졌다.

또한 제3악장은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위에 첼로의 주제 선율이 드러난다. 첼로와 피아노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대화를 이어간다. 서정적인 피아노와 첼로의 유장함이 돋보였다. 마지막 제4악장은 첼로의 서정적이고 자유분방한 테크닉, 이를 뒷받침하는 피아노의 효과적인 표현력, 나아가 첼로와 피아노의 화려한 피날레가 청중의 열광적인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번 무대는 각각의 연주곡이 만들어진 시기가 달랐으나, 모두 낭만적인 서정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여기에 자유롭고 대담한 첼로, 피아노의 능란한 협주, 첼로와 피아노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 그것은 객석에 자리한 청중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드높이는 기제이기도 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음악이 없었다는 점은 꼭 아쉬운 일이었다.

영화 <평평남녀> (2022)

평평한 세상을
다져가는 이들을 위해

글_곽수혜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그런 일은 여자가 해야 그림이 좋지” 사회초년생 시절, 당시 나의 상사가 우편물 수발이나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께 차를 타는 일을 지시하면서 덧붙였던 말이다.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겠다고 외쳤던 면접 때의 입사 포부에 균열을 낸 말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좋아지게 여직원이 가운데에 앉아”라는 말이 거리낌 없이 오가곤 했다. 이런 말들 속에서 직장 생활을 버텨본(?) 경험이 있다면 영화 <평평남녀>의 주인공 영진에게 감정이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영화 <평평남녀>는 평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평평한 삶과 관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33세 만년대리 영진(이태경)의 좌충우돌 성장담을 그린다. 영진은 연애나 결혼은 뒤로 하고 오직 회사에 열정을 바쳐 달려왔다. 영진이 속한, 주문받은 제품만을 디자인하는 디자인2팀은 회사에서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하는 부서다. 하지만 영진은 퇴근 후 집에서까지도 자신만의 디자인을 고민할 만큼 일에 열정적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와중에, 낙하산을 타고 뽀뽀히 과장 자리를 꿰찬 준설(이한주)이 나타난다. 디자인2팀의 팀원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능력, 경험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준설을 무시하기 일쑤고, 준설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팀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영진을 괜히 괴롭힌다.

둘의 관계에 묘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준설이 영진을 따라 전시회에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다. 영진의 눈에 비친 준설의 열등감은 어느새 애정의 도화선이 되고 만다. 인생 첫 연애에 들뜬 영진에게 설렘 가득한 날들이 시작되는가 싶지만 그것도 잠시. 영진은 준설이 과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준설은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만들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둘 사이 애정전선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평남녀>는 언뜻 오피스 로맨스물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슬슬 평범한 로맨틱코미디의 궤도에서 이탈하는데, <평평남녀>의 의의는 여기에 있는 듯하다. 회사 내에서 기분 나쁘지만 묘하게 받아치기 어려운 순간, 남녀관계에서 애매하게 불편한 순간을 기막히게 포착한다. 업무능력보다는 ‘분위기를 좋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 순간, 화장기 없는 얼굴과 부스스한 머리 대신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뭐라도 바른 얼굴이 필요한 순간 같은 것들 말이다. <평평남녀>는 이런 불쾌함의 순간을 코믹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쏘아 올리는 대사는 꽤나 날카롭다.



영진은 일도, 연애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갖은 노력을 한다. 준설이 원하는 대로 그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여자답게' 굴어보기도 하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도 시작한다. 한편, 부장을 찾아가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노력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이 모든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다.

영진의 갈등이 가장 폭발하는 장면인 영화 후반부의 육탄전은, 이 영화의 매력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영진과 준설은 그야말로 서로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치고받는데, 그 싸움이 처절하고 짜질해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던 두 사람의 노력의 끝이 몸싸움이라는 사실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배어 나오기도 한다.

대개의 영화 속 인물들은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하지만, 영진은 그렇지 않다. 아, 물론 영진이 택한 길 역시 사랑으로 찾는 셈일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차이점일 것이다. 영진은 회사에서의 성취도, 애잔한 첫 연애도 내려놓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한다. 조금은 허무한 결말로 비칠 수도 있으나, 이미 굳어진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판을 짜보겠다는 결

심은 어찌면 극 중에서 과감하게 추진한 영진의 수많은 행동 중에서도 가장 영진다운 선택일 것이다.

인물의 감정선이나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지점도 있다. 하지만 이 틈을 메운 데에는 배우 이태경의 몫이 크다. 그는 영진을 마치 출근길 지하철 어느 칸에서 한 번쯤 마주친 것처럼 여겨지도록 인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어떤 때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무가내인 영진이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는 이유 역시 이태경 배우가 발산하는 에너지 덕분일 것이다.

영화 내에서 부산이라는 직접적인 배경 언급은 없다. 인물들 역시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산시민이라면 익숙한 배경이 눈에 띄는 것이다. 영화 속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센텀시티 곳곳과 시립미술관, 복천동 고분군, 송정역, 지하철 등이 반갑게 다가온다. 부산 출신의 감독이 부산에서 촬영했고, 배급 역시 부산의 유일한 독립예술영화배급사 씨네소파에서 맡았다.

영화 <평평남녀>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함을 위해 땅을 다져가는 이들을 향한 응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영진의 언니인 싱글맘 하나(이봄), 그리고 여배우에서 직업을 전환한 택시기사(서갑숙)의 존재는 연대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완전한 평평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영화는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영진'에게 평평한 세상을 꿈꾸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말하는 것 같다. 영화의 힘을 입어 오늘도 출근길에 올라본다.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수많은 평평남녀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개설 40주년 및 박환영 교수 퇴임 기념음악회

민속음악 돌아보기

2022. 5. 12.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글_한창재 변호사

평범한 변호사로 생활하던 필자는 2014년 5월경 한 가야금 연주자를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수십 회의 국악공연을 관람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국악에 문외한이었던 필자가 반복해서 국악을 듣고 관람하다 보니, 그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듣는 귀와 보는 눈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되었다. 특히 배우자가 연주자로 출연하는 공연에 한정해서는 필자의 공연후기가 가장 객관적인 피드백이 된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반^ㅈ국악인으로 살다 보니 찾아서 보고 싶은 공연도 생기게 되었는데, 언제 들어도 항상 좋은 명인들의 연주는 1년에 한 번 관람기회가 있을까 하는 공연인지라 언제나 현장에서 그 기예를 즐기고 싶은 욕심이 들게 한다. 판소리, 가야금, 아쟁의 김일구 명인의 공연이 그러했고,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고^故 신명숙 명인과 박대성류 아쟁산조의 박대성 명인의 공연 또한 그러했으며, 오늘 퇴임 기념연주회의 주인공 박환영 교수의 공연도 직접 관람해보면 필자와 같은 기분을 경험할 것이라 확신하는 공연 중의 하나이다.

박환영 교수는 대금전공자로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에서 대금을 교수하고 있지만 무속음악, 장고, 작

곡, 지휘에 이르기까지 예술영역을 넓혀왔다. 무대에서는 국악 종합예술인으로서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제 대금산조의 고^故 박종기 명인, 진도 씻김굿을 비롯해 남도 들노래, 강강술래, 진도 다시래기, 진도 만가, 진도 북놀이, 진도 닻배노래 등 수많은 진도의 고유예술을 정립했다. 또한 그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승화시킨 고^故 박병천 명인으로 대표되는 속칭 '진도 박씨' 가문의 장자로, 아버지인 고^故 박병천 명인으로 부터 사사한 진도 씻김굿을 비롯한 민속음악의 대가이고, 현재는 대금과 더불어 민속음악의 정수를 부산의 젊은 국악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좋은 교육자이기도 하다.

박환영 교수는 이번 음악회에 대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개설 40주년 및 본인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기는 하나, 본인의 연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예술을 이어받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생, 졸업생, 강사 등 젊은 국악인들의 기예를 즐겨달라고 당부하였고 첫 번째 곡 대풍류 합주가 연주되었다.

대풍류는 염불풍류가 정확한 명칭으로 순수 기악합주나 승무의 무용반주음악으로도 쓰이는데 본래 삼현육각 편성(머리2 대금1 해금1 장고1 좌고1)으로 구성되지만, 당일 연주에서는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의 현악기를 추가하여 풍성한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염불풍류의 엄숙한 분위기의 긴염불 장단으로 시작하여 흥겨운 허튼타령 장단을 거쳐 가장 빠른 템포의 당악 장단으로 끝나는 연주를 들으니, 무대에서 승무와 함께 하는 대풍류는 어떠할지 궁금해지기도 하였다.

민요유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민요(아리랑 태평가 청춘가 군밤타령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를 악기로 연주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특별히 부채춤 장구춤 꼭두각시 등 무용음악 형태의 연곡으로 구성하였다. 보통의 민요공연에서는 민요를 부르는 창자^{창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연주를 집중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민요연주는 상당히 새로운 구성이었고,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관객들이 혼자서 민요를 흥얼거리며 공연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다.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은 박환영 교수의 작은 증조부로, 박환영 교수도 이생강 명인으로부터 박종기계 대금산조를 사사하여 그 연주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탕하고 깨끗한 것이 특징인 박종기계 대금산조 가락을 토대로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한주환류, 한범수류, 이생강류, 원장현류 등 대금산조들이 변화 발전하였다고 한다. 프로그램 상으로는 박환영 교수가 장고로 반주를 하고 제자들이 제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연 시에는 박환영 교수도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필자는 오랜만에 대가의 대금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상당한 집중력을 사용하였다.

시나위는 악기 편성이나 장단의 쓰임새가 자유로운 음악으로 연주자들은 장단에 맞춰 즉흥적으로 연주한다. 하지만 공연 당시에는 연주자들의 합주가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완성도도 높았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으로 맞춰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공연이 끝난 뒤 가야금 연주자에게 물어보니 “시작하는 장단

과 본청, 변청되는 장단과 변청, 솔로로 연주하는 순서와 장단만 정해놓았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즉흥연주였다”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필자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매우 수준 높은 연주, 모든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를 즐기고 다른 연주자들과 하나가 되어, 대단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이라고 메모해 두었는데, 필자가 느끼기에는 즉흥 연주였던 변청시나위가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음악적 완성도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될 정도로 어디 하나 흠을 찾을 수도 없는 연주였다.

마치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와 같았던 설장과 합주와 흥겹고 구성진 남도 신민요 신땃노래를 거쳐 공연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필자가 민속음악 중 가장 좋아하는 진도씻김굿이 연주되었다. 진도씻김굿은 남도음악의 백미로 불릴 만큼 많은 음악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 춤, 연주를 포괄한 남도음악의 정수라고 한다. 씻김굿의 전반부는 산사람들의 명과 복을 빌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며 후반부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연주회에서는 관람하는 관객들의 명과 복을 위한 전반부 제석거리가 연주되었다. 당일 공연에서는 제석거리도 상당히 축소되어 연주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는데, 공연을 통해 진도씻김굿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씻김굿 전체를 연주하는 공연에서 남도음악의 정수를 온전히 즐겨보길 꼭 추천한다.

‘툭아보다’는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뜻으로, 박환영 교수가 자신의 퇴임기념 음악회의 제목을 ‘민속음악 툭아보기’로 정하고 제자들을 공연의 중심으로 세운 것은 겨레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속음악의 정수를 찾아서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환영 교수의 의도와 같이 이번 공연을 통해 박환영 교수의 음악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기대하게 되었고, 필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들의 길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낼 것이다.

박창희의 길 이야기XVI

깨어나는 아라가야...

함안 역사순례길을 걷다



함안 밀이산 고분의 5월 풍경

‘파면 나오느’ 역사의 타임머신

1년 중 잔디색이 가장 좋은 때는 오월 초순이다. 꽃 피고 새 올면 오월의 잔디는 하늘빛을 머금고 파릇파릇 생기를 얻는다. 이즈음 잔디가 덮인 고분길을 걸으면 상념이 부풀어 올라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된다. 아라가야 역사순례길을 걷는다. 발길이 저절로 함안 말이산(末伊山) 고분으로 향한다. ‘말이’는 ‘머리’에서 나온 말로, 한 시대의 우두머리들이 묻힌 산이란 뜻이다. 제 이름을 숨긴 역사의 우두머리들이 웅긋중긋 고분으로 솟았다. 함안은 아라가야의 옛터다. 가야 제국諸國은 자기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나 다행히 무덤에 다양한 유물을 남겨 후세들을 흥분시킨다. 아라가야의 고층 고분은 역사의 텃밭이자 타임머신이다.



함안 역사순례길 지도

‘파면 나온다’. 서기 79년, 화산 폭발로 인해 자취를 감춘 로마의 폼페이를 두고 고고학자들이 해온 말이다. 이 말은 함안 일대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가야 제국. 김해 금관가야(가락국), 고령 대가야, 창녕 비화가야, 고성 소가야와 함께 함안 아라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중앙집권형 고대국가로 이르지 못한 채 신라에 통합된다. 고려의 김부식은 삼국사(『삼국사기』)만 챙기고, 가야사를 한낱 변방사로 취급했다. 김해와 함안, 창녕, 고령 등지의 가야 제국은 오랫동안 ‘역사 없는 자식’ 취급을 받아야 했다. 유물이 아니었다면 낙동강권 영남지역의 고대사는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을지 모른다. 최근 전라도 지역까지 ‘가야, 가야’를 외치는 걸 보면 가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강성한 나라였던 것 같다.

아라가야를 푸는 키워드

함안군은 2021년 3월 아라가야의 유적지와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아라가야 역사 순례길’(아라길)을 열었다. 아라길은 함안군청이 있는 가야읍내의 전통 재래시장을 비롯해 주변 경관이 빼어난 함안 중심지의 명소와 고대 아라가야의 성터,

고분군 등을 아우른다. 아라길은 함안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원점회귀하는 코스다. 전체적으로는 전통 오일장(5, 10일)이 열리는 가야시장과 아라길을 지나는 1구간(1.4km), 동산정까지 2구간(2km), 함안역까지 가는 3구간(2.2km), 무진정과 성산산성을 거치는 4구간(2.6km), 함안박물관까지 가는 5구간(2.2km), 말이산 고분군을 품은 6구간(3.7km), 남문의 고분군과 함주공원을 돌아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7구간(3.5km)으로 구성돼 있다. 총거리는 약 18km지만 필요한 구간만 골라서 걸을 수도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함안박물관과 말이산 고분, 그리고 성산산성 일대다. 이 세 곳을 봐야 비로소 아라가야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만나는 아라가야는 지배자가 왕관을 쓰고 점성술을 행하면서 철갑 기마병을 거느리고 다양한 철기와 토기를 사용하는 등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는 모습이다. 아라가야는 4~6세기 여러 가야국들로부터 ‘형님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가야 문명의 중심이었다.

견다 보면 몇 가지 키워드를 마주한다. ‘아라’라는 말과 마갑총, 화염투창고배, 그리고 왕 무덤의 별자리와 왕관, 고대의



말이산고분 4호분 구조

목간(木簡) 등이다. '아라'는 어여쁜 사람 이름 같다. 아라가야의 전신인 '안야(安邪)'와 '안라(安羅)'에서 '아라'가 유래했을 수도 있다. 문헌에는 '아시랑' '아라랑'이란 말도 등장한다. '아라랑(我羅郎)'은 '나는 부드러운 사내' 또는 '아름다운 사내'라는 뜻이다. 아라랑의 초기형 가사 '아라랑 아라랑 아라리오'에도 '아라'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라가야란 국명은 부드러움 속의 강함, 외유내강, 문화민족의 DNA를 품고 있다고 하겠다.

화염투창고배(불꽃무늬 굽다리접시)는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도질 토기다. 함안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나중에는 경주로까지 전파되었다. 함안지역에서는 4세기 전반 대부터 고식 도질토기가 존재했고 종류 또한 다양했다. 굽다리 접시는 굽다리가 점차 짧아지다가 5세기가 되면 단순 소박한 불꽃무늬 굽다리접시로 진화한다. 조형미 실용성에서 돋보이는 화염투창고배가 탄생한 것이다. 함안박물관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토기 조형물이 화염투창고배다. 아라가야의 미적 감각과 불꽃 같은 성정을 말해주는 것 같다.

함안 마갑총(馬甲塚)은 아라가야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1992년 6월 아침, 함안 가야읍 도항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문배달 소년이 굴착기로 파헤쳐지기 일보 직전에 철 조각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발굴단이 1주일에 걸쳐 흙을 조심스레 제거하자 길이 8.9m, 너비 2.8m의 거대한 덧널무덤(목곽묘)과 함께 '말 갑옷(馬甲)'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말의 얼굴을 가리는 마면주도 보였다. 삼실총·쌍영총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된 것과 거의 흡사한 말 갑옷이었다. 당시 무덤에서는 금판을 장식한 길이 83cm의 둥근고리큰칼(환두대도)과 토기류가 수습됐다.

4세기 후반에 조성된 이 무덤의 주인공은 아라가야의 수장급으로 추정됐다. 어떤 학자는 마갑총은 아라가야에 철갑부대가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고구려 벽화와의 친연관계를 볼 때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南征)과 관련 있는 유물일 것으로 봤다. 1,500여 년간 잠자던 아라가야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발굴소식은 지상파의 저녁 토크쇼로 보도됐고, 발굴에 기여한 신문배달 소년은 일약 함안의 '인디아나 존스'로 떠올랐다. 철갑을 입은 가야 무사와 말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와 같다. 연약한 가야의 이미지가 강성함으로 치장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말 갑옷에 금동관 쓴 지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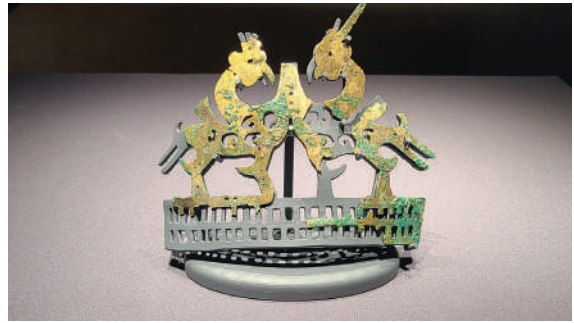
발굴은 최근까지 이어졌고 연속 희소식이 타전됐다. 2019년 발굴된 말이산 45호분의 유물을 보존 처리하던 중 금동관을 발견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대향의 쌍조문이 표현된 금동관 조각이다. 두 마리의 새(봉황으로 추정)는 날개부가 서로 연결돼 있다. 출토 상태가 불량한 탓에 많은 부분이 결실했으나 대륜(臺輪)과 입식(立飾) 등이 선명했다. 길이 16.4cm, 높이 7.0~8.2cm, 두께 0.1cm 정도다. 이를 꿰맞추니 금동관이 확실했다. 이 금동관은 리모델링 작업 끝에 2022년 4월 재개관한 함안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금동관은 주변국 왕관과는 판이한 디자인이다. 관테 위에 두 마리 봉황이 서로 마주 보는 형상으로, 아라가야 공방의 제작품이라는 것. 따라서 5세기 초 이후 아라가야의 왕이 신라, 백제, 대가야의 왕과 마찬가지로

황금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통치했다는 얘기다.

최근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경남 함안 말이산 75호분에서 5세기 중반 중국제 청자그릇이 출토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백제 땅에서 확인된 것과 흡사해 아라가야의 국제교류가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2018년 함안 말이산 13호분에서는 전갈자리와 궁수자리 등 125개의 별자리가 새겨진 무덤 덮개돌이 확인됐다. 동양에서는 궁수자리에 속한 6개의 별이 북두칠성을 닮았다고 해서 '남두육성'이라 일컬었다. 북두칠성이 하늘과 죽음을 의미한다면, 남두육성은 땅과 생명을 뜻한다. 아라가야인들은 생명이 만발하는 봄철,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자리를 그려 무덤에 장식했다. 아라가야인들의 생사관이 우주에까지 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아라가야의 중심부인 함안은 일제강점기 일본 어용학자들이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증거를 찾는다면 여기저기를 들쭉서놓은 곳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의 직할지인 임나일본부는 김해 또는 함안에 있다고 했고, 일본학자들은 한국병합은 곧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라 망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아라가야의 강성한 군사력과 문화적 힘이다. 허구의 학설은 깨졌고 아라가야의 실체만 뚜렷할 뿐이다.

가야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눈앞

아라길은 그야말로 아라가야를 뿔뿔히 순례하는 길이다. 변변한 기록이 없기에, 고분 유적 등에서 나오는 쇠조각, 토기편, 뿔조각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아라가야 고분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하고 진중해야 하는 이유다. 아라길 전체 7개 코스는 군청에서 제작한 순례지도를 구하면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다. 앞에 소개한 키워드들은 미궁의 아라가야의 실체를 찾는 길잡이라 할 것이다. 말이산 고분길을 한 바퀴 돌았다면 이제 성산산성(사적 제67호)을 올라야 한다.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일대에 자리한 성산산성은 해발 139m의 조남산(造南山) 또는 성산(城山)이라 부르는 산 위에 축조된 삼국시대 석축 산성이다. 둘레가 약 1,400m이고, 말이산 고분과도



아라가야의 조형미 정점을 보여주는 사슴모양 불잔

연접해 있다. '함안읍지'에는 '가야국의 옛터'라고 기록해 놓았다. 최근 이 산성에 대한 학술발굴조사에서 성문이 있었던 동문지, 남문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배수로 시설, 연못池, 건물지 등의 유구와 고배, 단경호 등 토기류, 귀면와, 막새 등의 기와류, 그리고 명문목간(名文木簡) 등이 출토됐다. 이곳의 목간은 신라 조정과의 활발한 교류 흔적을 보여준다.

성산산성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아라가야가 신라에 점령되었을 때 신라군에 맞서 싸우던 장군이 전쟁에 진 것을 원통해하며 울면서 '성+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장군을 본 사람도 없다는 전설이다. 또 하나는 2009년 5월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연꽃 씨앗에서 발아한 이색 연꽃이다. 연대 추정을 해보니 700년 전, 즉 고려시대 연꽃 씨로 확인되었다. 함안군은 이를 '아라연꽃'이라 이름하여 지역브랜드로 가꾸고 있다. 가야의 옛터에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길손을 설레게 한다. 말이산 고분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은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큰 걸림돌은 없다고 한다. 아라홍련이 피는 올여름 등재 쾌거가 이뤄지면 그땐 아라길을 다시 걸어야겠다.

글 사진_박창희 경성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석 대표

부산시립극단과 부산연극VI

‘1인 예술감독’ 혹은 ‘수석연출’의 등장과 그 이후 (1)

1998년 1월^(19일) 부산시립극단이 창단했을 때, 운영 체제의 핵심은 5인 예술감독 체제였다. 이전 연재를 통해서도 그 명암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듯, 이 체제는 상당한 문제를 낳았다. 5인 예술감독의 발언권이 중복되면서 극장 경영과 작품 제작에 혼란을 겪었고, 이들이 다시 연출가로 초빙되면서 초기 작품 제작 기조를 뒤흔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주요한 성과로 남은 제작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은 5인 예술감독 체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초청 연출자(대부분 예술감독이기는 했지만)의 개인적 능력에 기원한 바 크다. 물론 그러한 연출자와 호흡을 맞춘 부산시립극단 배우와 운영진 역시 그 성패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질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는 부산시립극단 측도 양지했기 때문에, 2000년에 들어서자 그 운영 체제에 변화를 가미하고자 했다. 기존의 예술감독위원(5인 예술감독 체제)을 해체하고 그중 전성환을 예술감독으로 하는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때 전성환 예술감독은 수석연출이 된다. 사실 이 당시 호칭은 몇 가지 혼선을 남기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예술감독이 5명이었고, 그중 김동규가 상징적인 위원장을 맡는 체제였기 때문에, 경영진을 주도하는 직책의 이름은 예술감독이었다.

하지만 전성환을 단독으로 하는 예술 경영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수석연출이라는 주장과 예술감독이라는 호칭이 병존했다. 배우들과 실무진은 예술감독으로 부른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 밖에서는 수석연출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¹⁾ 다만 지금으로선 1인 예술감독 체제의 수장으로서, 공식 직함은 수석연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당시 배경을 소급하는 이유는, 훗날 예술감독과 수석연출의 공식 직함에서 오는 차이가 역할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손기룡 수석연출 시기에 손기룡은 자신이 수석연출이기 때문에 외부 연출의 초청과 극단 내부 행정보다는 연출 작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술회한 바 있다.²⁾ 김광보 수석연출 시기에는 직함을 예술감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래서 김광보 수석연출이 퇴임한 이후에는 예술감독 체제로 변화되어 문석봉 예술감독이 부임하기도 했다.³⁾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성환 1인 예술감독 혹은 수석연출 시기에 그 호칭과 역할 그리고 관련 수행 업무에 대한 정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해야 한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불필요한 혼란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호칭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전성환 수석연출은 그 특성상 극단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명망이 높고 그 실력을 인정받은 원로 배우였기에 전성환 수석연출의 취임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당시 부산시립극단은 배우 출신 수석연출이 감당하기에는 그 체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정기공연(예정) 작품을 선택해야 했고, 해당 작품의 연출에 관여해야 했다. 특히 그 시기에는 연출의 권위가 더욱 컸고 연출의 역량이 작품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던 시점이었다. 결국 배우 역할을 해야 하는 전성환 수석연출로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 외부의 조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배우는 예술감독이 될 수 없다거나 연출가만 예술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인하지 않았으면 한다. 막 창립된 부산시립극단의 상황을 고

려할 때 연출가를 수시로 구하고 외부 조연을 통해 작품을 선택하는 일은 당시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덮어 버리는 폐해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만일 부산시립극단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기틀을 마련한 이후였다면 전성환의 선임이 다른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실제로도 운영 체제가 안정되고 뚜렷한 경영 철학이 정착된 이후에는, 연출가가 아닌 예술감독이 극단 운영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불어넣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가령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연출가가 아닌 평론가가 취임했을 때, 국립극단은 한결 다른 면모를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례이다.

2000년 이후 2~3년간의 공연 면모를 보면, 이윤택과 [연희단거리패]의 인적 자원이 부산시립극단 작품 제작 과정에 깊게 투입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각광 받는 연출가로서 이름을 날리던 이윤택에게 다양한 조력과 협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해 보이는 부산 연극의 수준일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지나친 의존 관계가 이루어지고 운영 관련 기조와 철학적 성찰이 미루어지는 문제는 상당한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시기에 부산시립극단이 당장의 실적이나 눈앞의 공연을 해결할 목적을 버리고 다소 긴 안목으로 부산시립극단이 나아갈 2~3년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물론 때늦은 발언일 수 있겠지만, 만일 그러한 작업이 느긋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면 역시 그 이후에 생겨날 적지 않은 혼란을 예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립극단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연사 / 전성환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극단 전체무대창단, 부산MBC 상무 및 라디오 PD로 활동
한국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89 대한민국 연극대상 수상
2011 마해당극단상 수상 등
지리 연극연으로 방 송 및 영화 연극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함
주요출연작 <상년 겨울로 위풍아보라>로자와 호수<왕고인 두려 송각>
<세월프린트 죽음><리더들><퍼스트>의 다수
영화 <불가사리> <원제 오주><정종영할> 주연배우로 출연



시아버지 / 박진영

부산시립극단 단원
91 부산연극제 최우수 남기연기상 수상
<그것은 제비> 공연속에 허물아엎고<다>
그 이후의 후반기에는 <올해의 신사>
<문간현 간고><리더들>에 다수 출연



월호 / 이돈희

부산시립극단 단원
<제비>의 연극연으로 수상, 90 부산연극제 최우수 남기연기상 수상
<여왕><그것은> 기타<다><무엇이>를<고>하<다>
<올해의 신사>에 다수 출연



시아머니 / 임매린

부산시립극단 단원
94 제비 부산연극제 여기연기상 수상
95 부산시립극단 최우수 연기상 수상
<연호> <리더들>에 다수 출연
자 상<리더들><퍼스트><죽음>의 시(기)의 다수 출연



충흥, 기생전성 / 정영심

부산시립극단 단원
91 제비로 연극연으로 연기연기상 수상, 92연기
최우수 연기상 수상, 94 올해의 연기연기상 수상
<올해의 신사> <연호> <리더들> <퍼스트>의 연기
연극연으로 최우수 연기연기상 수상, 94연기
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 전성환 8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 전성환 8)

임시 결단은 관련 문제를 가중하였고, 전성환 수석연출에게도 긍정적인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제12회 정기공연은 피터 셰퍼 작 <블랙 코미디>였는데, 당시 연출은 권오일이었다. 권오일은 오랫동안 이 작품을 공연해 왔지만, 그것은 소극장 중심의 공연 경력이었다. 하지만 부산시립극단은 이 작품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우 중에는 권오일 연출자가 성좌의 공연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본적인 무대 크기(중극장)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⁴⁾ 더구나 연출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예정 작품까지 변경하면서 권오일의 연출을 배려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⁵⁾ 공연작 변경과 재설정 과정에서 지나친 친분 관계에 의한 의사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⁶⁾ 이 모든 문제를 수석연출의 독단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극단 내부에는 예술감독에 대한 불신임이 팽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술감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인 측면에서
임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예술감독의 결정을 보조하고,
이를 때로는 감독하거나 조율하는 조직은 사라졌다.



친분 관계에 의한 연출 선임과 '몰아주기식' 관행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산시립극단에서 나타나는 폐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과 폐해 그리고 오판들이 2000년부터 2003년에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부산시립극단은 산적인 문제들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잘못된 의사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감독할 의사 결정 기구도 없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술감독들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고, 그것은 대부분 비공개여야 하며,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 일어날 경우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로 인해 극단 내부에는 예술감독에 대한 불신임이 팽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술감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인 측면에서 임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예술감독의 결정을 보조하고, 이를 때로는 감독하거나 조율하는 조직은 사라졌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티모임으로 전락했고, 이에 대해 성토하는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⁷⁾. 그렇기에 그때의 1인 예술감독 혹은 최초 수석연출 시기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예술감독이든 수석연출이든 판단의 보조 자료도 필요하고 자문과 협력의 기관도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03년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보조 자료는 부족했고, 자문·협력 기관은 유명무실했으며, 의사 결정에 관한 성찰과 재고는 부재했다. 결국 2003년 전성환 감독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사임을 표명했다.⁷⁾ 연임까지 한 전성환 수석연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더 짙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글_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연극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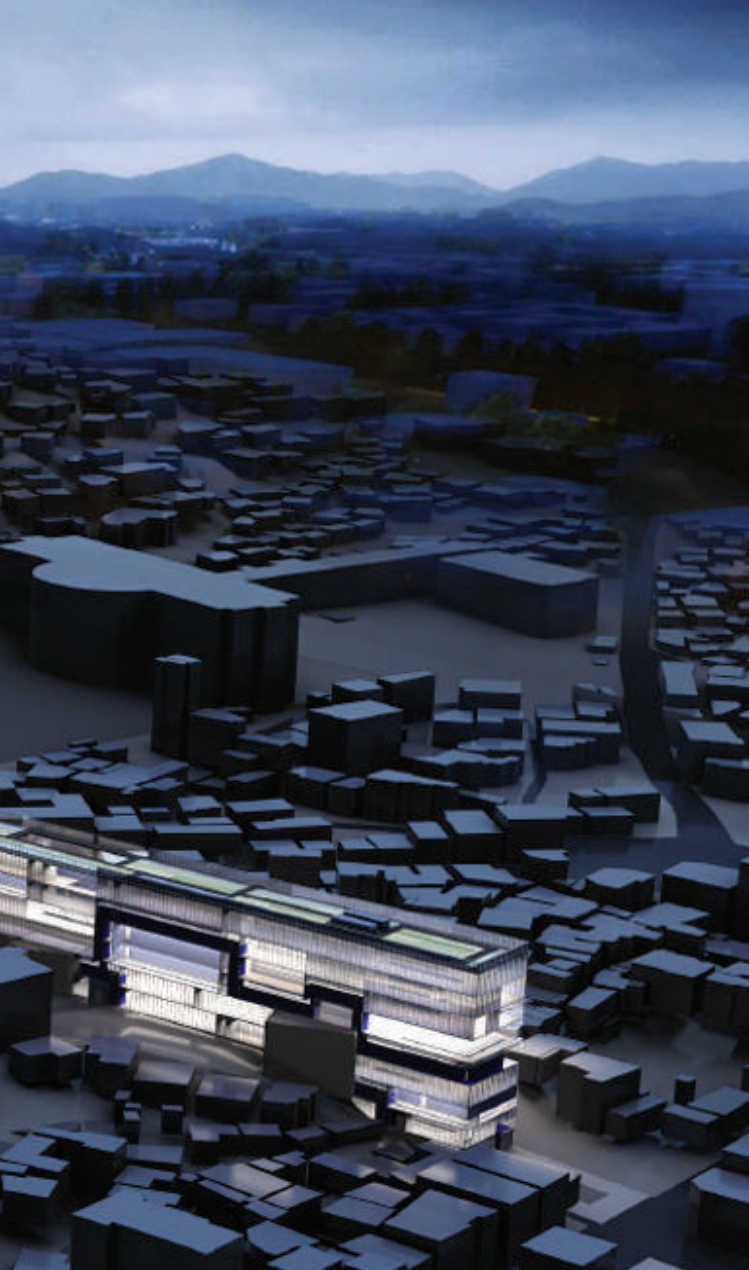
- 1)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자 사표 파문」, 『국제신문』, 2010년 8월 22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00823.22019211109>
- 2) 김남석, 손기통과의 인터뷰,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미나실, 2022년 1월 27일.
- 3) 「맞춤형 레퍼토리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겠다」, 『국제신문』, 2012년 8월 2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20803.22022193218>
- 4) 김남석, 박찬영과의 인터뷰, 부산시립극단연습실, 2021년 10월 25일.
- 5) 2001년 연초에 발표된 공연 예정작 섹 세퍼드 원작 〈마음속 깊은 곳〉이었다(「시립예술단 '2001 공연 캘린더」, 『국제신문』, 2001년 1월 2일).
- 6) 김남석, 박찬영과의 인터뷰, 부산시립극단연습실, 2021년 10월 25일.
- 7) 「부산시립극단수석연출자 공모」, 『부산일보』, 2003년 3월 7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30307000104>
- 8) 사진은 200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 제15회 정기공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팸플릿의 한 면이다. 이 작품의 연출자는 이윤택이었고, 전성환은 번사역을 맡아 출연하였다. 전성환이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로 재직하면서 출연한 마지막 작품이다. 전성환 수석연출은 2003년 2월 28일자로 사임한다.

建築私記Ⅵ

부산개발 釜山啓發

부산의 개발 | 아파트 단지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쉽게 여기저기 한창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1876년 개항으로 근대 항만도시로 첫발을 내디딘 후 근대도시의 역사가 15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이 도시는 여전히 지을 곳이 많은지 계속 개발 중이다. 그렇다면 이 개발의 방향은 과연 부산을, 아니 부산을 사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기존의 주거지역을 밀어버리고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개발을 더욱 부추겼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 불패'라는 믿음하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로또라는 재개발 딱지를 거머쥔 거주민들의 희망과 함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뜰이나 산이 많아 평지가 별로 없는 이 부산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높게 쌓은 성벽처럼 올라가고 있다. 그나마 단지가 되기 힘든 좁은 땅에는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초고층 건축물이 모두 114개 있는데 그중 34개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40층을 기준으로 하면 100여 개가 넘어간다. 그중 대부분이 아파트다. 기존 아파트 단지들에 더하여 새롭게 생겨나는 아파트 단지들은 그들만의 성을 쌓아 외부인들은 자동차로도, 걸어서도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부산의 보존 | 도시재생사업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파트 재개발과 함께 부산의 도시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좌초된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애초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거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활성화나 기반시설 확충에 실패하였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로또에 당첨된 마냥 잔뜩 희망에 부푼 거주민들의 기대는 개발 타산성이 없어 떠나가 버린 시행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 시간이 멈춰 낙후된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살리겠다는 정부의 달램은 주민들 혹은 집주인들에게 위로조차 되지 못하였다.

바로 길 건너 옆동네는 아파트 딱지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주민들은 우리 동네도 재개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교육과 참여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이끌며 동네 사랑방과 동네 어귀 평상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앞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는데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은 소통하고 모여야 되고,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장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내 집을 구경하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러한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釜山 | 위기의 도시

부산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경사도가 높은 산지 지형 사이로 도시가 발전되어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를 이루고 있어서 대부분의 도시에 산지가 분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형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유별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상업 및 업무시설 분포는 산지 사이의 평지를 따라

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주거시설은 경사도가 높은 산지지형까지 퍼져 있다.

경사지 주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상권과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기존 도시계획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평지의 건물에서는 가로(街路)에 따라 비슷한 접근성을 보이는 것에 반해 경사지에서는 지형에 따른 수평적 이동은 평지와 비슷하지만 수직적 이동은 경사도에 따라 접근성이 확연하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상권, 관광, 주차 등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의 이용반경이 가로를 따라 사방으로 연장될 수 있는 평지와는 달리 경사지는 지형을 따라 이루어진 수평 가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는 상권의 지속가능성은 경사지에서 유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많은 도시 재생 사업에서 초기에 상권, 관광, 주차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지만 -일부 관광지로 각광 받는 경우를 제외한- 부산의 많은 사례에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경사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지 주거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의 계산에 의해 경제성을 따져 저밀도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데, 경사지는 평지와 다르게 지형 자체가 이미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끼치는 영향은 평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경사지 고층 아파트 단지는 기존의 경사지가 가지고 있던 경관과 지형에 따른 공간구성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며, 내부에서의 전망과 외부에서의 경관을 파괴하는 원인이다.

특히 대단지 고층 아파트 재개발은 경사지형에 있어서 대단지 주변의 수직적 수평적 단절, 경사지 녹지의 상실, 대단지 위, 아래 지역에서 생기는 경관 문제 등 평지에 비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사지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부산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2022년 현재 123개이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의 상당수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

경사지주거 디자인 전략 | 저층 고밀도 공동주거

경사지 저층고밀도 공동주거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소재한 영주동의 보행통행 분포는 -일반적인 부산의 산복도로가 있는 경사지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된 동서 간 도로에 집중되어 있으나 주요 남북 간의 도로는 계단과 비탈길로 접근성 및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신주거문화 클라우드영주’에서 보여주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방향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로서 현재 많은 지역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높은 경사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통행이 불편한 주거지와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와 노후화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느린 속도와 잦은 고장, 탑승지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접근성과 연계성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저층 고밀도 공동주거로 열린 도시공동주거유형인 ‘오픈 시티’를 제안한다. 오픈 시티의 조건으로 다음의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픈 시티는 지형에 순응한 개발을 한다. 저층의 분산화 된 중소규모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형질변경을 지양하고, 절토로 인한 토양배출을 최소한으로 한다.

둘째, 가로와 도시기반시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의 가로 개방, 가로와 주거 사이의 공간 확보, 경사지 내의 수평 도로와 기존 도로의 연결, 주거 공간에 근접한 주차공간 마련을 꾀한다.

셋째, 가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분산된 복합프로그램을 개방된 수평 도로에 배치하며 차량을 통한 접근과 수직 코어와 수평 도로를 통한 보행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공모전(COPYRIGHT© Dbyus Architects)

넷째, 선형적 단계별 개발을 진행하여 수평 도로를 통해 도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대규모의 단지개발로 한꺼번에 그 지역을 갈아엎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에 따른 선형적 개발로 기존의 가로와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그 중간에 레이어를 쌓아가는 식의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¹⁾

Mega Infrastructure | Urban Core

산지 사이의 평지를 따라 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경사주거지까지 끌고 오기 위해 경사지의 수평적 도로를 관통하는 수직적인 도시 코어(Urban Core)를 삽입한다. 대상지는 초량 산복도로 일대로 북향, 부산역과 구봉산 사이 경사주거지이다. 다양한 시설이 발전된 부산역 일대와는 다르게 구봉산으로 올라갈수록 상업시설, 녹지공간, 주차공간 등 도시 기본 시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기존의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진 수직가로에 평균 4, 5층 높이의 도시 코어를 삽입하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통한 수직동선을 만들고, 각 층에 공원, 주차공간, 문화공간, 상업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평지의 도시기반시설이 경사지 상부까지 연속되도록 한다.

동시에 각 층의 출입구를 각기 다른 레벨의 주변 수평도로와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조직과 맥락을 유지하며 경사가 높지 않은 수평가로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지속가능한 부산개발 釜山啓發

부산의 경사지 도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과 도시재생의 양극단적인 변화의 방향 사이에서 열린 도시를 향한 지속가능한 ‘부산개발’을 제안하며 두 개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부산개발은 부산의 특성과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일깨우고 활용하여 개발하자는 의미이다.

우선 경사지 저층 고밀도 공동주거는 선형적 수평적 단계별 개발을 통해 점진적인 경사지의 변화를 끌어내고, 도시 코어 삽입을 통해 평지의 도시기반시설을 끊임없이 경사지까지 끌어와 노후화되어 멈춰 있는 경사지 동네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한다. 열린 도시가 되기 위해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처럼 구역의 경계를 짓거나 관계자의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하고 편리하며 활기찬 도시를 만들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같이 공공의 길을 개인에게 내어주는 일은 막아야 하며, 낙후되어 누구라도 선풍 들어가지가 꺼려지는 동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그라운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부산은 계발되어야 한다.

글_허진우 부산건축가회 Dbyus Architects 대표

1) [1] 성이웅 허진우, 「경사지 저층 고밀도 공동주거 디자인 전략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8권 제5호(2022)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한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악문화예술교류축제

7. 3.(일)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광역시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부산국악협회(회장 김인숙) 주관으로 개최하는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악문화예술교류축제'(이하 국악문화예술교류축제)가 7월 3일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국악문화예술교류축제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 지역이 가진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국악문화예술교류축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예술인들의 염원도 담았다. 먼저 부산국악협회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해운대 아리랑을 들려주고 동래학춤을 선보인다. 광주국악협회는 판소리와 무용, 국악을 콜라보한 '胡蝶夢(나비의 꿈)'을 공연한다.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를 바탕으로 장자가 꾸었다는 나비의 꿈처럼 꿈에서나마 그리운 이도령을 만나고 싶지만 꿈조차 꿀 수 없는 심정을 소리와 무용, 구음으로 콜라보해서 보여준다. 대전국악협회는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 덕담을 담은 노래를 엮어 부르는 '지신밟기 비나리'를 들려준다. 인천국악협회는 <방아타령> <청춘가> <궁초맹기> 등 민요를 들려주고, 대구국악협회는 [맥무용단]이 진도북춤을 공연한다. 울산국악협회는 널리 알려진 민요와 아리랑을 개량한 18현25현 가야금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제주국악협회는 제주무속연물장단에 맞춘 <제주 기원무>와 제주토속민요로 곳에서 신을 기리며 즐겨 부르던 무가로 소리가 매우 구성져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울려 놀 때 흔히 부르는 <서우제> <자진서우제> 등을 들려준다. 전석 초대.

문의 051)644-5211



제31회 부산무용제

6. 18.(토) ~ 19.(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회장 김갑용)가 주관하는 제31회 부산무용제가 6월 18일과 19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경연 참가작은 모두 4팀이다. 영화와 발레를 콜라보레이션 한 부산발레연구회의 <Re-member>, 임성원 박사의 기장 미학에 바탕을 두고 동해로 가는 길목과 물목인 기장바다와 그 바다를 일터로 삶의 발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춤패바람의

<동해로 가는 길>, 노동자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담아내고 노동이라는 것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현대무용단 자유의 <They Live>, 조상들이 터를 다지며 집안의 안위를 비는 곳이었던 성주풀이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아트프로젝트 춤:is의 <舞家_푸리>이다. 대상 1팀은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9월에 개최하는 제31회 전국무용제 부산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된다.

문의 051)632-5116

제41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요강
 코로나19으로 인하여 비대면 촬영대회로 시행함

! 접수기간 ! 2022. 9. 2(화) 17:00 (제41회)부터
 ! 촬영기간 ! 2022. 4. 15(화) ~ 8. 31(수)

총칙
 1.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2.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3.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4.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5.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참가자격
 1.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3.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4.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5.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참가방법
 1.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3.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4.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5.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접수처
 1.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3.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4.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5.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다.

제41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접수마감 ~ 9.2.(금) 오후 5시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김양호)가 주최·주관하는 제41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가 비대면으로 열린다. 해수욕장, 재래시장, 사찰, 산복도로 등 부산 지역의 풍광과 생활모습, 부산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축제를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출품규격은 11×14인치 컬러 및 흑백사진이다. 부산사협 홈페이지에 조선통신사, 해운대 모래축제, 부산국제무용제 등의 행사내용과 날짜, 장소 등이 게시되고 각 축제에는 촬영도우미를 배치해 촬영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작품 접수는 9월 2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심사 결과는 9월 7일 발표된다. 당선작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631-4111



최경현 개인전 흰여울문화마을 전

5. 23.(월) ~ 5. 28.(토)
부산시청 제1전시실

최경현 작가의 개인전이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명은 '흰여울문화마을로,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세웠던 흰여울문화마을의 여러 풍경을 장소와 주제에 맞춰 감각적으로 배열한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2016년 촬영 수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21년 중반까지 꾸준히 문화마을을 찾았다고 한다.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마을길, 흰여울초등학교와 남향어촌계의 해녀들, 마을에 자리한 카페 등이 그의 카메라에 담겨 과거의 흔적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흰여울문화마을은 아픔의 역사 뒤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라며 "흰여울문화마을을 더 오래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정숙 개인전 Tension

~ 6. 10.(금)
데이트갤러리

단색화와 전위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선보이는 부산 해운대구 데이트갤러리에서 6월 10일까지 안정숙 작가의 개인전 'Tension'이 개최된다. 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한 안 작가는 한국 단색화의 물결로 인정받으며 국내외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활 모양으로 나무를 재단한 뒤 중심축을 예리하게 다듬고 원이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를 고민한다. 버팀목을 덧붙여 캔버스와 함께 고정된 후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장력으로 캔버스 천을 씌운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삶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대립과 충돌의 '긴장'을 작업 모티브로 삼는 작가에게 '긴장'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을 지속하는 필수 에너지다.

문의 051)758-9845



박진성 개인전 HESTORY

~ 6. 12.(일)
맥화랑

어린이의 형상에 주름과 수염이 있는 '아저씨'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박진성 작가의 개인전이 해운대구 맥화랑에서 6월 12일까지 열린다. 작가에게 아저씨라는 존재는 사전적 의미인 중년남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자기 자신과 같은 '익명의 어른'을 대변하는 존재다. 초기작에서 눈에 맺힌 눈물을 통해 현대인의 다양한 감정을 대변했다면 최근에는 행복의 메시지를 가시화한 '파랑새', 모성애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빛 덩어리' 등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해 위로와 위안의 의미를 전한다. 특히 이번 개인전 'HESTORY'에서는 '책'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삶을 써 내려가는 아저씨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른스러움을 벗어 던지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저씨의 이야기가 곧 모든 현대인의 이야기임을 표현해낸다.

문의 051)722-2201



김석영 개인전

~ 6. 20.(월)
갤러리 마레

자유분방한 색채로 불멸의 생명력을 그려내는 김석영 작가의 개인전이 6월 20일까지 갤러리 마레에서 열린다. 작가는 '곡신'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는데 곡신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곡신불사(曲神不死)'에서 따온 말로 '굴짜기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굴짜기 정신은 자연과 생명을 잉태하고 순환시키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스템을 뜻한다. 작가는 주로 말이나 연못, 꽃의 형상으로 곡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예기치 못한 원색들의 섞임으로 묘한 긴장을 자아내거나 빠른 붓질로 형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등 환상적인 표현력으로 그려낸 형상이 캔버스 위에서 어우러진다. 불사조를 말하는 'Phoenix'라는 작품명처럼 그는 그림을 통해 생명의 기운과 치유,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문의 051)757-1114



연희부 정기공연 왔구나~ 연희야!

6. 24.(금) 오후 7시 30분,
6. 25.(토)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우리 춤과 연희의 본고장으로써 전통공연 예술을 계승하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연희부 정기공연 〈왔구나~ 연희야〉를 개최한다. 6월 24, 25일 양일 동안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 대표 농악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시리즈 공연으로, 12차의 판굿으로서 걸립굿과 두레굿 등의 가락을 12종 36가락으로 구성해 정립한 '진주삼천포농악'을 선보인다. 영남지역 농악의 원형을 이어가고 있는 진주삼천포농악은 우리나라 농악 중 제일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농악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12차의 각 과정을 통일된 동작으로 끊임없이 뛰면서 하는 독특한 진행은 진주삼천포농악 고유의 특징을 보여준다. 선조들이 마당에서 즐겼던 한판놀음의 신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문의 051)811-0114



갤러리 景 개관전 통하다, 展

2022. 5. 25.(수) ~ 6. 25.(토)
갤러리 景

거침없는 붓 획을 자랑하는 작가 금경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갤러리 景'을 열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작가와 관객이 허심탄화하게 작품세계를 풀어놓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개관전으로 진행되는 '통하다, 展'에서는 그의 고유한 시각과 기질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형상성을 피하고 순간적인 감흥과 직관에 중점을 둔 작품들은 학문적 토대나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작가는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이러한 고독은 적절한 상대(예술철학)를 만나지 못하다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군중 속에서의 고독은 잡스러운 것 때문에 더욱 견디기 힘들다"라고 작가노트를 전한다.

문의 010-7680-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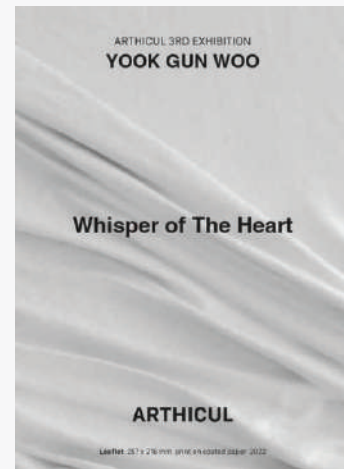


시간 그리고 공간의 겹

6. 2.(목) ~ 26.(일)
갤러리한스

크고 둥근 보름달 그리고 작은 섬 하나가 한국화의 여백의 미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수묵담채산수화를 그리는 김명화의 작품이다. 작가 작품의 길 속에는 항상 자연이 존재한다. 그 자연은 자신을 바라보며 작가만의 보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었다. 그 시간과 공간의 향기는 또 다른 시선과 표현의 길이 되었다. 작가는 한지에 채색의 마른 붓질로 첩첩이 쌓아 올리는 색과 세필을 이용해 겹겹이 공간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그렇게 쌓아 올려지는 색들의 표현은 또 다른 자연이 되어 작품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지난 2018~19년 홍콩컨템퍼러리아트쇼 참가 전후로 개성있게 진화된 작업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뉴욕 홍콩 스페인 등의 소장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51)784-0233



육건우 Whisper of The Heart

~ 6. 30.(목)
ARTHICUL

재송동에 자리한 갤러리카페 아티컬에서 육건우 작가의 'Whisper of The Heart' 전시 열린다. 아티컬은 예술Art 건축Architecture 문화Culture를 공간에 담아 표현한다는 의미로, 지하라는 특성을 살린 무채색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작품을 돋보이게 한다. 천을 젖소에 담갔다 꺼낸 뒤 캔버스에 펼쳐 내 잡아당기고 주름을 만드는 행위를 반복해 탄생하는 육건우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회화성을 띤다. 작가는 "결집이 주는 불안을 통해 내면 켜켜이 쌓인 감정의 운율을 이번 전시에 담았다"면서 "천을 감싸고 덧입히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완전한 형질 전환을 이룬다. 모든 작업이 자아 개념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51)783-1953



제30회 부산한국화전 특별기획 소품전

6. 27.(월) ~ 7. 2.(토)
부산시청 전시실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에서는 여백의 미도 중요한 감상 포인트이다. 대상에 대한 표현을 간결히 하고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공간을 남김으로써 더욱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모색해 보는 부산한국화전이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시청 제1, 2전시실에서 열린다. 서른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STORY'라는 콘셉트의 소품전이다. 한국화분과 회원과 비회원들이 선보이는 10호 이내의 작품 13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식 날에는 부산한국화 특별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2022 부산한국화 특별상' 시상식도 열린다. 부산한국화전 운영위원장 김현철은 "먹색의 은은하고 짙은 멋과 여백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한국화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010-4850-2261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 7. 3.(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이탈리아 볼로냐 도서전에서 선정한 세계 유명작가 50명의 일러스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부산진역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에서 열린다.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은 1967년부터 2016년까지 도서전에서 수상했던 작품을 5개의 섹션으로 나눠 소개한다. 작품에는 시대별 상황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오디오 가이드도 지원하고 있다. 일러스트뿐 아니라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림책도 비치되어 있는데, 이민자 등 현대사회의 소외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작가 손 테의 『The ARRIVAL』 등을 원서로 만날 수 있다. 2층에는 알파벳으로 그림을 그리는 '폰티그램' 작가인 마리쿠테의 '알파벳 동물원' 전시와 그림책을 통한 증강현실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51)440-4066



각진 원형 : 김용관

~ 23. 2. 26.(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다양한 테마의 동시대 현대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온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는 2022년 기획전으로 '각진 원형: 김용관' 전을 개최한다. 김용관 작가는 주로 과학과 수학적 사고체계를 응용한 작품으로 평면, 입체, 설치 및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완결된 구조를 분해, 재배열하거나 임의로 만든 작은 단위의 블록을 무작위로 쌓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관계를 고찰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완결된 도형을 자르고 붙이며 원에 가까운 도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작품화해 선보인다. 작가에게 각진 도형과 원형은 현실과 이상의 모습으로, 분할된 다각형들이 모여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닮아있다.

문의 051)744-2602



눈물, 종유석을 키우다 송경희/이로재

‘시란 무엇이든 사실이다 하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더 리얼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T.S.엘리엇)이다. 송경희 시인의 『눈물, 종유석을 키우다』를 채운 작품들도 껍을 같이 한다. 상처와 절망이 반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견디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아득한 높이에서/수직으로 떨어질 것 같은/무너지는 내 맘/베란다 난간 높이로 자라난 해바라기/흔들리는 땅이 되어 하늘을 본다/매달릴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높이/바람 불 때마다/손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허공 너머/한 줌 햇살을 찾아 뿔어간다’(『해바라기』 독백 중) 2015년 계간 『부산시단』으로 등단했지만, 내재된 문학적 재능이 빛을 발하듯 김어수문학상 우수상, 『부산시단』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다.



다큐 속의 풍경 한시영/나무향

‘난생 처음 술을 입에 대 본 것도 그때다. 아버님은 술을 가르친 게 아니다. 술을 통해 조였던 마음을 느슨하게 푸는 용통성과 따뜻함을 가르치신 거다. 시래기 줍는 걸 가르친 게 아니다. 세상 물리를 터득하는 단단함을 가르치셨다.’(『시래기밭에 나비』 중) 영문도 모르고 죽을 만큼 부끄러웠지만 시어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작가는 새색시 시절 급단장을 하고 새벽 도매시장에서 경매 작업 후에 남아 있는 무청 배춧잎을 자루에 담았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무청 김치 한 통으로 형제간에 넉넉한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을 작가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수필은 자기 고백의 성격이 강한 문학 장르인 만큼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읽는 것과 동일하다. ‘가볍지 않게 내면의 바닥을 찾는데 천착하며 자문자답의 시간들을 이어 나가려’는 작가의 첫 수필집이다.



침묵을 깨는 새 이형주/해암

『영호남문학』에서 시로, 『문학도시』에서 수필로 등단한 이형주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시를 짓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세상사에 농부는 순응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오늘/영거주춤 부르던/나의 노래가 불도저에 몽개졌다//새 발을 꾸미라는/나의 명령에/노래는 다시 오선지에 숙명이듯/오르내린다’(『발을 갈다』 전문)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농부의 심정일까. 불도저에 몽개졌지만 시인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새 노래를 찾는다. 박미정 시인은 “시인은 그가 체험한 삶의 여러 양태들을 독특하게 창조한다. 삶의 내밀한 질서의 변용을 통해 자유자재로 상상력을 펼쳐는 시법이 돋보이며,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의식을 지니고 측은자심을 표현하여 깊은 여운을 남긴다”고 안내한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사랑, 예술사랑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안 감 찬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 병 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술부산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가 5,000원)

「예술부산」을 받아보시려면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daum.net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daum.net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 분기 시작 2주전 ~ 개강일

방문접수 : 부산예술회관 3층 302호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계좌이체 등록시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주세요.

문의 051-631-1377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수업장소	수강료	운영기간
1:1 프리미엄 피아노클래스	6명	월) 11:00-13:00	2층 연습실	* 3개월 36만원	2분기 (2022년 4, 5, 6월)
이팔청춘 실버댄스	20명	월, 수) 14:00-14:5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월, 수) 17:00-17:5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가곡교실	20명	화) 10:00-12:0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유튜브로 성공하기	20명	화) 10:30-12:10	4층 회의실	3개월 9만원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7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남도민요(판소리)와 장구	20명	화) 14:00-15:3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프리미엄 합창	20명	수) 10:30-12:00	2층 연습실	* 3개월 13만원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8:00	4층 회의실	3개월 15만원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4:00-16:0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얼씨구 우리민요	20명	목) 10:3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수채화여행	20명	금) 10:00-11:3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댄스스포츠	20명	화, 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라인댄스(오전반)	20명	화, 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라인댄스(오후반)	20명	화, 목) 19:00-19:5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및 교재비 별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5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